



MAY 2019

Vol.286

5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통권 제286호 2019년 4월 25일 발행



신나는 놀이터... 성남의 아이들, 도서관에서 놀다! 판교어린이도서관<관련기사 04면>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식 SNS

트위터 twitter.com/seongnamcity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ngnamdiary
블로그 www.seongnamdiary.com
홈페이지 <http://snvision.seongnam.go.kr>

발행처 성남시 편집처 공보관

주 소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콜센터 성남시콜센터 1577·3100

5
독서 릴레이

성남시민
독서 릴레이

⑤ 그림책NORi 이지은 대표

내 마음속 어린이를 찾아... 그림책, 아이와 어른이 만나는 마법의 세계



그림책NORi 이지은 대표

“어린이는 손도 작고, 발도 작고, 귀도 아주 작아요.
그렇다고 생각까지 작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이들이 하는
엉뚱한 생각이 어른들을 즐겁게 하니까요.
그러면 어른들은 놀라워하며 일을 땀 벌리지요.
“우아!”

어른들은 잠잠한 데서 자고 싶어 해요. 좀처럼 우는 일도 없어요.
콧속에 비누가 들어가도 말이에요. 정말 울어야 할 때에도
들릴 듯 말 듯 나직이 흐느껴요. 흐느낌이 하도 작아서 어린이는
눈치도 못 채요. 글썽요, 못 본 척하는지도 모르지요.”

—《어린이》중에서

성남 불곡산 아래 터를 잡은 그림책NORi에는 다양한 그림책들이 숨 쉬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색깔과 이야기를 뽐내며 책방을 방문하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손짓하지요. 나른한 오후 어느 날, 그 많은 그림책 중 두 권의 그림책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바로 《어린이》와 《나의 엄마》입니다.

그림책의 매력은 끝이 없습니다.

먼저, 짧은 시간 내에 톡톡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읽었던 한 권의 그림책은 세월이 흘러 또 다른 감정과 의미를 전해 줍니다. 읽는 ‘내’가 변하니 읽히는 ‘그림책’도 변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그림책을 함께 읽는 동안에는 낯선 이들도 금세 친구가 됩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 각자의 느낌과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열리지요. 그 중 그림책 매력의 가장 으뜸은 내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내 아이’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시절을 잊게 되지만요.

베아트리체 알레마나의 《어린이》는 내 마음속 아이는 물론, 내 곁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도 다시 보게 합니다. 번역본의 제목은 ‘어린이’지만, 원제목은 ‘Che cos’è un bambino 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제목에는 작가의 생각 또한 여러 시각 중 하나에 불과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아이에 대한 질문을 마음에 품어 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아이는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아이 다움’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린 사람’입니다. 작고 여린 몸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을 품고 있는 ‘어린 사람’.

그림책 속 아이들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어른이 정해 놓은 답을 향해 달려가지 않지요. 그저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감정에 충실하며 자신만의 세상을 확장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이야기를 펼쳐놓지 않아도 아이들은 얼굴 자체만으로도 큰 힘

을 가집니다. 이는 작가가 온전히 아이들을 ‘바라보고’ 만든 그림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언어의 숲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의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뱅뱅 뚫린 평탄한 길을 걷기도 하지요. 범람하는 언어 체증으로 피로도가 극심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무언가를 표현하기에 그지없이 좋은 도구지만, 때로는 온전히 상황을 표현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의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로 시작해서 ‘엄마’로 마무리하는 그림책.

언제나 익숙하지만, 그래서 쉽게 뱉는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중함과 감사함에 대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단어가 바로 ‘엄마’입니다. 반면 엄마의 입장에서 이 단어는 또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단어이지만,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각양각색 의미로 존재하는 ‘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는 돌림노래로 불릴 이 단어는, 그림책 속 익숙한 상황과 만나 화려한 수사만으로는 표현 불가능한 감정들을 끌어올립니다. 작가의 손글씨에서 느껴지는 서툰지만 진정성 있는 마음 또한 그림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눈부신 5월, 화려한 5월. 무엇보다 평소 잊고 지내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5월, 나의 마음과 가장 닮아있는 단어들을 찾아 소중한 이들에게 정성껏 전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림책NORi는 6월의 성남시민 독서릴레이 주자로 공동육아 어린이집 ‘세발까마귀’ 돌고래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아이들과 최상의 어우러짐을 자랑하는 돌고래! 자, 제가 선사하는 그림책, 어여 받으세웁, 으쌰~~!

기고 그림책 NORi 이지은 대표



《나의 엄마》 강경수 지음, 그림책공작소 펴냄
《어린이》 베아트리체 알레마나 지음, 한솔수북 펴냄



▶ 성남시민 독서 릴레이는

시민과 시민이 책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① 은수미 성남시장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
- ② 보육교사 노희지 <언어의 온도> →
- ③ 일하는학교 <배를 엮다> →
- ④ 사회복지사 이성실 <당신이 옳다> →
- ⑤ 그림책NORi 이지은 대표 <나의 엄마>, <어린이> →
- ⑥ 공동육아 어린이집 ‘세발까마귀’ 안성일 선생님

독자 리뷰 모집

성남시민 독서릴레이에서 소개하는 책을 읽은 후 리뷰(원고지 6매 이내)를 <비전성남 편집실>(이메일 sn997@korea.kr)로 보내 주세요. 선정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031-729-2076~8

행정수요 140만, 성남시를 특례시로!

성남시 재도약의 길목 특례시, 국회로 넘어가



행정수요가 새로운 기준 돼야, 주민등록 인구 대비 22% 이상 높아

성남시 특례시 지정 을 위한 토론회가 4월 1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성남시장은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거주 인구 기준이 아닌, 성남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문제, 행정수요의 문제, 서비스 수요의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은 “기존 광역시 지정 시에도 인구 기준 100만에 미치지 못한 도시(광주·대전·울산)가 있었다. 이것은 인구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지방자치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시 지정기준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인구만을 고려한 지정에 반대했다”며 종합적인 행정수요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성남시의 행정수요를 볼 때, 성남시는 특례시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차별화된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정부가 제출한 특례시 지정 기준안은 인구수 100만 명이다. 성남시는 인구 96만 명으로 인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성남시의 행정수요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 지 오래다. 행정서비스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최소 22%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에는 우리나라 4차 산업을 주도하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원도심의 하이테크단지 등이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외지인이다. 이들 역시 성남시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 거주하는 곳보다는 직장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의 행정기관을 찾는 것을 볼 때, 거주 인구 기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향점을 세워야 한다. 성남시의 행정수요는 140만을 넘어서고 있다.

“행정수요 100만 입법하라!”

특례시 되면 행정서비스

질적·양적 향상, 재정 늘어



이광수 이매1동 방위협의회장은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의 질적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 시민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 기능도 특례시 자격 충분

도시 기능으로 봐도 성남시는 특례시 자격이 충분하다. 성남시 3개 구 가운데 분당구는 인구가 50만에 육박해 일반구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어지간한 1개 시군의 인구수와 비슷하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성남시 내 사업체 수는 6만4천여 개로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만도 44만9천여 명에 달한다. 판교테크노밸리에만 2017년 기준, 66만1천㎡ 면적에 1,306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종사자는 7만4천여 명에 이른다. 제2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순차적으로 1,400여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2022년 58만㎡가 넘는 제3 밸리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 일대에는 약 10만 명의 첨단산업 종사자가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도시에 맞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과 시 재정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금 재도약의 길목에 서 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지금 아니면 100년 후에도 성남은 특례시가 될 수 없습니다

「특례시」란?

- 일반시와 차별화된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
※ 189개 사무,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협의 ⇒ 인허가권, 개발권한 확대

「특례시」 혜택

- 추가세금 없이 재정수입 증가로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도시인프라 확충
※ 도세 중 10/10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추가교부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50층 이하의 건축물 허가권한 등 직접처리
- 경기도 경유과정 없이 신속한 계획집행 가능
- 행정조직 확대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현 「특례시」 기준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 지정 ⇒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만 해당, **성남시 제외**

현 「특례시」 기준의 문제와 대안

- 출산율 저하에도 획일적인 인구기준은 현실적으로 비합리적 기준
⇒ 실질적인 **종합행정수요를 특례시 기준으로 추가**
- 100만 이상 도시의 행정수요임에도 50만의 조직으로 도시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기구와 권한 부여**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

-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등 **4차산업 혁명의 동력확보 시급**
- 의료, 문화, 교통 중심도시 성남은 **행정수요 140만 이상의 대도시**
- **광역시급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확보**로 행정혁신과 미래도약의 상징성 확보

시민의 힘으로 성남을 특례시로!





5/5

네가 있어 참 좋아!

제97회 성남어린이날 큰잔치

WELCOME!

2019. 5. 5(일) 10:00~16:00

성남시청 광장

공연 마당

아트봇 댄스 공연 | 사인스피닝 공연 | 엘제이 댄스 공연
버블쇼 | 가족참여 레크리에이션

건강한 I 아로마테라피 인텔러 만들기 | 아로마 주물럭비누 만들기 | 민화 부채 만들기
자전거 동력발전 체험 | 내가 만드는 맛있는 간식(2합케익, 케일유스)

꿈꾸는 I 배틀큐브빙고 | 도전북면큐브왕 | 창의블록(블럭스, 스네코, 트라바올, 트라벨)
VR체험 | 로봇코딩 | 광광스틱 | 홀로그램만들기

소중한 I DIY요술팔찌만들기 | 아동안전지킴이집 찾아가기 | 다문화놀이 체험
아동권리존중캐릭터 엠블럼만들기

당당한 I 이동 포토존 | 희망우체통 | 아동권리존중 바람개비만들기
놀라운 운동놀이 | 엄마아빠도 만들어 봐요(양말인형)

휴식존 인형극 | 독립운동가 웹툰캐릭터전

기관·단체 체험부스
119안전체험 | 드론체험 | 3D펜·3D프린터 | 나무놀이마당 등

부대 행사
캐릭터와 함께 사진찍기 | 어린이에어바운스 | 영화 상영
먹거리마당(커피, 음료, 과일고치, 베이커리, 풍류키, 아이스크림 등)

주최 | 성남시 주관 | 성남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

※ 아이가 존중받는 성남시는 어린이날 의식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권역별행사(중원구)_“마을에서 함께”

- 일시 : 5.4(토) 10:00~16:00 • 장소 : 중부초등학교 운동장(중원구 은행동)
- 참여인원 : 1천여 명 • 주관 : 사단법인 푸른학교
- 프로그램

사업명	진행시간	참여인원	추진내용
만들기 마당	10:00~14:30	각 400~500명	〈우리는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 가족사진관(가족사진 촬영 및 인화) • 나의 인권 실천 배지 만들기 • 나무공작소 • 팔찌 만들기 • 풍선아트 • 페이스페인팅 • 생명존중, 봄 화분 만들기 • 양말목 방식 만들기
이벤트 마당 (지역공동체 연계)	10:00~14:30	각 500명	〈우리는 보호 받을 권리가 있어요〉 • 북 씬(마을 속 보호) • 토종 옥수수 착한 팝콘(안전한 먹거리) • 성평등 사회 만들기(평등) • 먹거리장터(여성회, 학부모회) • 아동안전캠페인(마을, 학교, 사회 속에서) • 나의 인권지수는 몇 점 • 전래놀이 • 버블버블 바누방울 • 달콤 솜사탕과 시원한 팥빙수
어울림 마당 (가족명랑운동회)	14:30~16:00	500~600여 명	• 축하 공연(청소년 댄스팀) • 다양한 놀이기구를 활용한 가족 공동체놀이

※ 프로그램별 행사 인원 조정 및 내용 변경될 수 있음

네가 있어 참 좋아!

5월 5일 제97회 성남 어린이날 행사

5월 5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예술, 과학, 체험, 교육 분야 창의적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놀이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스스로 행동하는 용기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행복을 느끼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경험하게 하는 자리다.

어린이날 본 행사(시청 광장)

- 일시 : 5.5(일) 10:00~16:00 • 장소 : 성남시청 광장
- 참여인원 : 2만여 명 예상
- 주요내용
 - 체험마당 : 30개 부스 운영(건강한I, 꿈꾸는I, 소중한I, 당당한I, 휴식존)
 - 기관참여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당경찰서 등 15개 기관·단체
 - 공연마당 : 오프닝퍼레이드, 댄스·아트봇·연극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 부대행사 : 영화상영, 드론체험, 성남 FC 팬사인회, 에어바운스, 먹거리장터 등
- 주최 : 성남시 • 주관 : 성남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
- ※ 상기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행사(수정구)_함께 놀자, 마을 놀이터에서!

- 일시 : 5.4(토) 10:00~16:00 • 장소 : 단대초등학교 운동장(수정구 단대동)
- 참여인원 : 1천여 명 • 주관 :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 프로그램

사업명	진행시간	참여인원	추진내용
여는 무대	10:00~10:30	300여 명	• 식전행사 – 어린이헌장 낭독, 길놀이(풍물) 외
체험 놀이마당	10:30~12:00 13:00~15:00	1,000여 명	• 체험마당 ① 동글동글 꽃 구리반지 ② 건강 먹거리 식물심기(채소화분) ③ 하늘 빛 담는 천연염색 ④ 생명존중 EM버누 만들기 ⑤ 안전 팔찌 ⑥ 봄 나비 페이스페인팅 ⑦ 가족사진 포토존 • 놀이마당 ① 병뚜껑 날리기 ② 컵타배우기 ③ 사방치기 ④ 지구 어린이 달리기 ⑤ 마을사랑, 아이사랑 슬로건 낱말 쌓기 ⑥ 미니 축구
가족 식당	10:30~15:00	1,000여 명	• 간단한 먹을거리 체험 부스 운영 • 음료 및 먹을거리 판매 부스 운영
특별 무대	12:00~13:00	1,000여 명	• 무술 시범단 등 공연
가족과 함께	13:00~15:00	500여 명	• 엄마 손 어린이 마스크 뜨기(코바늘) • 재생 양말목 만들기(냄비받침)
마을한마당	13:00~15:00	500여 명	• 지역교육생태계 회복 : 형값원숭이운동본부 • 우리 아이 건강은? : 한의사협회 • 지구 환경문제 : 환경운동연합 • 자연놀이터 : 오행청
닫는 마당	15:00~16:00	1,000여 명	• 대동제(박 티트리기)

※ 프로그램별 행사 인원 조정 및 내용 변경될 수 있음





5/25

4차 산업과 함께하는 ‘2019년 제1차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5월 25일 성남시청 광장서

성남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물경제 체험과 4차 산업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2019년 제1차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을 연다. 물건 재사용 습관과 가격결정, 홍보, 흥정을 하며 재미있게 시장원리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일시: 5.25(토) 13:00~16:00 ※ 우천 시 6.8(토) 진행합니다.
- 장소: 성남시청 야외 광장 • 참석대상: 어린이 및 가족, 일반시민
- 행사내용: 어린이가 주인인 착한 장터, 어린이 장기자랑, 풍물마당, VR, 드론, 3D프린터 등 4차 산업 및 비즈공예 체험, 페이스페인팅, 캘리그래피 등
- 주최·주관: 성남시(주)채움기획 • 행사문의: 031-757-0311, 704-2407
- 참가신청: (주)채움기획 홈페이지(http://www.채움.net)에서 접수
-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은 참가회비를 받지 않는 대신 판매수익금 일부(10% 이상)를 자율기부 받습니다. 기부금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지원됩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31-729-2573

세계 문화유산의 세계로~ 5월 19일 제8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 개최

5/19

- 일시: 5.19(일) 13:00~17:00 • 장소: 성남시청 광장 일대
- 주최·주관: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참여기관: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기관 및 단체 등

구분	시간	장 소
식전행사	13:00~14:00	시립국악단, 베트남자조모임, 다모글로벌 등 공연
기념행사	14:00~14:13	내빈소개, 개회선언, 국민의례, 애국가제창
	14:13~14:40	유공자표창, 개회사, 축사
식후행사	14:40~17:00	풍물(농악), 미8군 브라스 밴드, 다문화어린이 오케스트라, 귀한동포연합회, 나이지리아댄스 공연, 특별공연-택견 등
-	17:00~18:00	폐회 및 정리

※ 전시, 홍보, 체험, 음식부스 등 별도 운영

가족여성과 다문화팀 031-729-3072



4월 13일
클로리스 공연



4월 13일
벚꽃엔딩 공연

5/4~

성남시 ‘토요예술제’ 20차례 열어 도심 6곳 돌며 가요·댄스·악기 연주 무대

성남시는 4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도심 6곳을 돌며 20차례 토요예술제를 연다. 가요, 댄스, 악기 연주, 마술 등의 문화예술 공연을 쉽게 접하게 해 시민에게 일상 속 흥겨움을 전 하고, 지역 곳곳을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려는 취지다.

일자	장소	일자	장소
4.27(토)	야탑역 광장	6.29(토)	남한산성공원(놀이마당)
5.4(토)	위례 중앙광장	8.31(토)	정자역 카페거리
5.11(토)	서현역 로데오거리(6번출구 앞)	9.21(토)	위례 중앙광장
5.18(토)	탄천변(야탑동 분당보건소 앞)	9.28(토)	서현역 로데오거리(6번출구 앞)
5.25(토)	야탑역 광장	10.5(토)	탄천변(야탑동 분당보건소 앞)
6.1(토)	위례 중앙광장	10.12(토)	남한산성공원(놀이마당)
6.8(토)	서현역 로데오거리(5번출구 앞)	10.19(토)	야탑역 광장
6.15(토)	야탑역 광장	10.26(토)	위례 중앙광장
6.22(토)	탄천변(정자동 신기교 아래)		

관광과 관광정책팀 031-729-2994

※ 하절기(7.6~9.7) 및 추석연휴(9.14)는 제외. 위의 일정은 기상상황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취재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성남시티투어 도시'락'버스 달린다



11월 30일까지 토요 정기·특별·단체 코스 62회 운행



성남시티투어 도시'락'버스 정기코스에 포함된 남한산성

성남시는 4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티투어 '도시'락' 버스를 62회 운행한다. '오감 만족'을 주제로 토요 정기코스(31회), 특별과 단체코스(31회) 등 다양한 코스를 돌아 성남지역 곳곳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즐길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 코스별로 다양한 주제의 해설을 곁들인다. 토요 정기코스는 매주 관광지와 체험 거리를 달리 운영한다.

▲1주차는 남한산성, 판교박물관, 맹산반딧불이 자연학교 ▲2주차는 남한산성, 신구대학교식물원, 판교박물관 ▲3주차는 한국중앙연구원 장서각, 율동생태학습원, 신해철 거리, 오르페오 음악박물관 ▲4주차는 남한산성, 복정동 도자기 카페, 판교박물관 관광으로 짜였다.

특별코스는 관광지별 체험 위주의 관광 상품으로 구성했다. 운행 일정별 천연염색, 물총 놀이 등 자연체험, 나무로 생활용품 만들기 등 목공체험, 연꽃 스테이, 연잎 밥 만들기 등 사찰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단체코스는 20명 이상 진행하며, 지역 명소 3곳과 날짜를 선택해 코스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도시락 버스(45인승)가 서울시청역 3번 출구(오전 8시), 교대역 9번 출구(오전 8시 30분), 성남시청 정문(오전 9시)에 들러 관광객을 태운다.

성남시티투어 이용금액은 버스비(2천 원)와 관광지 입장·체험료(8천~1만8천 원)를 포함해 1인당 1만1천~2만 원이다.

성남시티투어 홈페이지(www.seongnamtour.com)나 운영업체인 (주)로망스투어로 전화(☎070-7813-5000) 예약하면 된다.

관광과 관광개발팀 031-729-8602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할 권리

조이(Joy)누리버스를 타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조이(Joy)누리는 조이(Joy : 기쁨, 즐거움, 행복, 환희)와 누리(세상을 뜻하는 우리 옛말)로 '세상을 즐겁게 누리다'라는 뜻이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야외 나들이 전용 대형버스인 조이(joy)누리버스는 장애인에게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남시는 3월 4일부터 장애인 야외나들이 전용 대형버스인 '조이누리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 **승차정원** : 탑승인원 총34명(일반석 25 + 휠체어석 8 + 기사석 1)
- **조이(Joy)누리버스 대여신청 방법** : ①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rehab21.or.kr>) → ② 나들이버스사업 클릭 → ③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 [신청] 클릭 ※ 홈페이지 가입 필수 → ④ 신청하고 싶은 월에서 신청 날짜 클릭 → ⑤ 이용기간 입력(당일은 1일, 1박2일은 2일, 2박3일은 3일) 및 탑승인원 입력 → ⑥ 해당란에 양식에 맞게 입력 → ⑦ 단체의 경우 [첨부파일 추가]를 클릭해 고유번호증 사본과 신청서를 붙임파일로 삽입 → ⑧ [예약하기] 클릭해 신청완료
- **대여조건** : 장애인 친목모임(장애인 최소 10명 이상), 장애인 단체(12명), 장애인 가족(15명), 장애 유관기관(12명), 장애인 학생(15명)
※ 이용대상별 승차인원의 50% 이상은 성남시민이어야 함.
※ 일요일·공휴일은 휴차이며, 매주 월요일은 차량 정비일(신청요일 : 화~토요일)
-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행사 시행 3개월 전부터 전월 15일까지
2차 신청기간 - 1차 선정결과 발표 후 시행 전월 25일까지(잔여일정에 한함)
3차 신청기간 - 2차 발표 후 시행일자 10일 전까지. 단, 당일 일정으로 함.
- **신청서류** : 관련서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 **버스지원 내용** : 버스 및 기사(최대 2박3일),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729-2840, 2809

이메일 : joynuribus@daum.net, 홈페이지 : www.rehab21.or.kr

‘전국 최초’ 지류·카드·모바일 3종 상품권 운영

4월 19일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100억 원 발행

성남시는 4월 19일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100억 원을 발행, 전국 최초로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등 3종 상품권을 동시에 운영한다.

이로써 시는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한 데 이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2006년 지류형 상품권 발행 이후 현재까지 고질적 불편사항을 해소, 구매가 편리해졌다. 소비자는 은행방문 필요 없이 6% 할인된 금액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가맹업소도 QR코드로 결제하면 결제대금이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돼 시간과 경제적 이익이 발생,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초기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 적응과 관련,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QR코드 결제의 어려움도 예상되나, 시범사업(2.21~4.18)에서 나타난 사례를 보

면 2~3차례 결제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는 시 산하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개인·법인택시까지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으로 확대, 시민 사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이 시행초기라서 3천여 개로 적은 탓에 시민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모바일 상품권이 시민 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2019년을 1천억 원 지역화폐 발행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정책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장현대화과 유통행정팀 031-729-2593



북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2023년 말 완료예정... 정수장 개량공사도 추진



성남시 수정구 북정정수장에 오는 2023년 말까지 31만4천t/일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다.

시는 4월 1일 ‘북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를 시작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고온, 가뭄 등으로 조류가 대량 발생할 때 물에서 나는 흙냄새, 곰팡이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이다. 오존 처리, 활성탄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해 기존 정수 공정으로는 잡기 어려운 냄새 등을 잡아낸다.

시는 시설이 낡아 현재 가동 중지 중인 3만4천t/일 용량의 정수장 개량 공사를 동시 추진한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하

루 28만t인 북정정수장 수돗물 생산·공급량은 3만4천t 더 늘어난다. 이곳에서 고도정수 처리된 물은 수정·중원 전 지역과 분당지역 일부 등 72만 명에게 공급된다.

북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11년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1,051억 원)를 국비 70%, 시·도비 30%씩 분담하기로 하고 추진됐다.

이후 국비 지원이 지지부진해 2013년 1월 실시설계 용역과 심의를 마친 상태에서 멈췄다가 최근 국비 중 일부를 우선 지원받아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수도시설과 수도정책팀 031-729-4083

성남FC 드디어 ‘내 집’ 갖는다

성남축구센터, 분당 정자동에 2020년 9월 오픈

성남FC의 숙원 사업인 클럽하우스 건립 공사가 4월 2일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성남축구센터로 불리는 성남FC 클럽하우스 기공식에서는 성남FC 구단주인 성남시장을 비롯해 이재하 성남FC 대표이사, 성남FC 선수단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공사 진행과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성남축구센터는 분당구 정자동 4-12번지 외 1필지(한국잡월드 잔여부지) 부지면적 2만9,977㎡에 총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해 클럽하우스 1개 동과 천연잔디구장 2면으로 조성한다.

이중 클럽하우스 건물은 연면적 7,304㎡, 바닥면적 2,25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클럽하우스에는 성남FC 선수들의 숙소, 라커룸, 휴게실, 체력단련실, 감독·코치실, 전력분석 회의실, 식당, 샤워실, 실내연습장 등을 갖춘다. 구단 사무실과 팬 관람시설, 라운지 등도 설치한다.

클럽하우스 건물 옆 천연 잔디구장은 각각 9,006㎡, 8,892㎡ 규모이며, 성남FC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쓰인다. 준공은 2020년 9월이다.

그동안 성남FC 선수들은 마음 편히



훈련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성남동에 위치한 제1종합운동장과 탄천의 제2종합운동장을 오가며 훈련을 해야 했다. 사정에 의해 두 곳 중 어느 곳도 쓸 수 없으면 인근 안양, 용인 등으로 떠돌이 신세를 이어왔다.

성남FC를 응원한다는 한 시민은 “성남축구센터가 완공되면 성남FC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해, 명문구단으로서 경기력을 더욱 높িয়ে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FC는 2018 K리그2를 2위로 마감해 2019 K리그1으로 승격했다. 남기일 감독과 9명의 코치 스태프, 39명의 선수가 뛰고 있다.

취재 정경숙 기자 chung0901@naver.com

성남형 학교환경교육, 환경문제 해결의 힘

2019년 초등학생 대상 학교환경교육 5월부터 진행



하천탐사_물속 생물 채집하기



숲탐사_나무 되어보기

어릴 때의 기억은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남는다. 어릴 때 늘 먹던 음식, 다니던 곳, 어른들에게 꾸준히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딘가에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낀다. 어른이 돼 행동할 때,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안다. 환경교육도 그렇다.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학교환경교육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환경에 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환경교육이 있다. 성남시는 관내 4,5,6학년 학생들에게 성남시의 특화된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자신의 주변을 아끼

고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 주기 위함이다.

학년별로 연계되는 학교환경교육

4학년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만나는 숲을 탐험한다. 학교 안에 있는 나무와 풀, 곤충, 새 등을 학생들이 찾아보고 관찰하는 시간이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활동도 함께한다. 새 학년이 돼 몰랐던 친구를 알아가듯이 학교숲의 동식물과 눈맞춤하며 생명에 대해 알아간다.

5학년이 되면 사기막골 하천, 중앙공원, 산성공원 등에서 다시 한 번 자연을 만난다.

곳곳에서 살고 있는 생명을 통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아간다.

4학년은 성남 내 환경에너지시설에 방문해 쓰레기 처리 과정을 알아보기도 한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 분리배출의 기본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이것은 6학년 기후변화교실과 연계되는 수업이다. 자원의 순환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환경교육 확대

환경정책과 최현주 환경교육팀장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주변 생태환경과 자원의 소중함을 아는 교육이 선행되고 일상적인 환경실천이 이뤄진다면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성남형 학교환경교육은 학교 운동장, 공원 등 가까운 장소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019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신규로 추가하고, 중학교 1학년 ‘환경교육으로 즐기는 자유학년제’ 수업을 확대했다.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생태 이야기

나폴나폴~ 팔랑팔랑~ 나비

5월 봄은 나비와 꽃의 계절이다. 나비는 꽃 사이를 분주하게 날아다니고 꽃은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 꽃가루를 동원해 나비의 방문을 온몸으로 반긴다. 꽃이 나비에게 꿀도 준비해 주고 헛터도 돼 주며 극진한 대접을 하는 까닭은 나비가 꽃이 열매 맺는 것을 도와 주기 때문이다.

나비는 연약해 보이지만 더듬이가 있고 가만히 있는 꽃을 찾아다니므로 능동적 남성으로 비유돼 여성으로 비유되는 꽃과 함께 그림, 자수, 도자기, 목공예 등에 자주 등장한다. 남녀화합,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 철학자 장자(莊子)가 꿈에 나비가 돼 온갖 꽃의 꿀을 빨아먹으며 행복을 맛봤다는 데서 연유한다.

나비와 고양이를 함께 그린 그림은 모질도(毫耄圖)라 하는데 중국어로 ‘고양이 묘(猫)’자는 70세를 뜻하는 ‘모(耄)’자와 발음이 같고, ‘나비접(蝶)’은 80세 노인을 뜻하는 ‘질(耄)’자와 같아 모질도는 ‘오래 삶’을 상징하게 됐다.

나비는 전 세계적으로 2만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일제시대엔 우리 나비이름 대부분에 일본이름이 쓰였는데 해방 이후 석주명 박사의 노력으로 우리 나비는 새로운 우리 이름을 갖게 됐다.

석주명 박사는 크기에 따라 왕자팔랑나비, 왕팔랑나비,

대왕팔랑나비로 이름을 지었다. 또한 색깔을 중요하게 여겼고(예: 배주흰나비, 노랑나비, 작은주홍부전나비), 생김새로도 이름을 지었는데 날개무늬가 호랑이 가죽처럼 생기면 표범나비로, 제비처럼 재빠르고 까맣게 보이면 제비나비라는 이름을 지었다.

우리 삶과 밀접한 생활용품을 가지고도 이름을 지었는데, 모시나비·꼬리명주나비는 날개색이나 무늬가 모시나 명주와 닮았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다. 수풀떠들썩 팔랑나비같이 수선스럽게 날아다니는 종류를 보고 ‘떠들썩’이라고 붙인 경우도 있다. 우리 나비 이름 속에 색깔과 생김새, 행동, 사는 장소나 지역 등이 정스럽게 담겨 있다.

성남의 남한산성에서는 5월 중순 이후부터 6월 중순까지 쌍꼬리부전나비를 잠깐 볼 수 있다. 알을 깨고 나온 쌍꼬리부전나비 애벌레는 환각물질을 내뿜어 마쓰무라 꼬리치레개미가 쌍꼬리부전나비 애벌레를 돌보도록 한다. 그러다 밤이 되면 쌍꼬리부전나비는 개미의 알이나 애벌레를 잡아먹는다. 독특한 습성을 가진 쌍꼬리부전나비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구온난화로 소나무숲이 줄면서 소나무 밑동에 사는 마쓰무라 꼬리치레개미가



1 탄천습지생태원

2 봄형수컷 꼬리명주나비(사진제공 길동생태공원 안홍균)

같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을 번데기 상태로 보내는 나비는 날씨가 추워 눈이 녹지 않아야 적절한 습기를 유지해 번데기 생존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지난 겨울은 유난히 따뜻해 건조한 상태여서 나비 번데기가 많이 죽었다고 한다. 이상기후는 나비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다.

성남에서는 사라져가는 나비 복원을 위한 도심 자연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정구 태평동 7033-1번지 일원 탄천습지생태원에 나비서식처를 조성해 관리 중이다. 탄천에서 5월 중순 이후 볼 수 있었던 꼬리명주나비와 큰주홍부전나비를 올해도 많이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

취재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판교 드론 기업 ‘홈그라운드’서 첫 시험 비행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양지공원 등 3곳

4차 산업 확대 기대



성남 판교 드론 기업이 4월 16일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 무인멀티콥터 시험 비행 중이다.

성남 판교 드론 기업 2곳이 ‘홈그라운드’에서 첫 시험비행을 했다.

성남시는 4월 16일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 민간업체의 드론 시험 비행을 지원했다. 이날 판교의 ‘S’ 기업과 ‘J’ 기업이 무인멀티콥터 2기를 상공에 띄워 비행 기체를 시험했다.

앞선 2월 18일 성남시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과 성남지역 관제공역 내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한 이후 처음 진행된 민간 업체의 시험 비행이다.

관제공역 내에 조성된 3곳 시험비행장은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 양지동 양지공원

이다.

당시 협약에 따라 드론 기업의 무인멀티콥터 시험 비행은 고도 150m 이하, 반경 900m 내로 각각 제한된 채 모두 10회 비행 기체 점검이 이뤄졌다.

성남시가 현장에서 통제·감독하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비행승인을 하며 항공안전기술원이 비행 감독·관리를 지원한다. 해당 드론 기업은 3월 8일 성남시에 시험 비행 신청서 제출해 4월 2일 비행 승인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승인을 얻었다.

성남시는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 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이다. 이 때문에 판교 입주한 22개 드론 개발기업을 포함한 성남지역 내 56개 드론 관련 업체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감수한 채 타 시군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해야 했다.

이에 성남시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3곳의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 관제공역 내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의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대통령도 당부한 일”이라면서 “4차 산업의 확대와 아시아 실리콘밸리 조성에도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관제공역 특성상 3곳 시험비행장에서 드론 시험 비행 땀 사진 촬영 카메라 부착 금지, 제3자에게 비행 시간과 장소 비공개 등 보안·안전 가이드 라인을 지켜야 한다.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 031-729-2443

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5.7(화) ~ 5.16(목) – 41개 강좌 966명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 ※ 추가모집 시 인근 사군 가능
- 수강료 : 3만 원(월 1만 원) – 수강신청 시 선납
- 교육기간 : 5.27 ~ 8.23(12주) ※ 하계방학 7.29 ~ 8.2
- 신청방법 : 성남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http://ll.seongnam.go.kr>) 선착순 접수(1인 1강좌) ※ 우선모집대상자 중 수강료 면제자는 우선모집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본인 직접 방문접수(선착순)
- 우선모집(5.7~5.8) :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직계가족, 3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2007.1.1 이후 출생자) 등 수강료 면제자
- 일반모집 : 5월 14일 18:00까지 인터넷 선착순 마감

접수 시작시간	모집강좌
5.9(목) 10:00	Get it beauty / 네일아트 / 도자기
5.9(목) 11:00	구글의 무한한 세계 / 엑셀 파워포인트 / 스피치리더십(야간)
5.9(목) 14:00	직장인을 위한 office / 포토샵& ucc / 인터넷창업(쇼핑몰)
5.9(목) 16:00	미술심리상담 / 정리수납전문가 / 다도 앤 티소물리에 / 한국사논술지도사
5.10(금) 10:00	클래식기타 / 통기타 / 향기요법 & 천연화장품 / 가족공예
5.10(금) 11:00	서예(한글) / 현대수묵담채화 / 민화 / 가정헤어
5.10(금) 14:00	생활중국어 / 생활영어 / 생활일어
5.10(금) 16:00	홈패션 / 의상야간(조끼& 자켓) / 의상기초야간
5.13(월) 10:00	재봉틀기초 & 홈웨어 / 의상A(셔츠 & 티) / 의상B(스커트 & 팬츠)
5.13(월) 11:00	소묘·드로잉 / 미술수채화 / 캘리그라피
5.13(월) 14:00	건강한 집밥요리 / 생활요리(야간)
5.13(월) 16:00	파스타& 리소토 /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5.14(화) 10:00	부동산경매과정 / 부동산경매과정(야간)
5.14(화) 11:00	샌드위치 & 샐러드(A) / 샌드위치 & 샐러드(B)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운영팀 031-729-4602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러분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과정명	교육일정	대상	접수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양성과정	5.27(월) 14:00~17:00	경기도 거주 40세 이상 취업 희망 여성	• 경기도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의 단기 취업교육(교육비 무료) • 4월 25일~5월 17일 선착순 방문·전화·홈페이지 접수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5~6월 중(총 2시간)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1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 법정의무교육(교육비 무료) • 4월 25일~5월 15일 선착순 전화·홈페이지 접수
Mini 취업 박람회 '내 일(Job)을 만나는 오늘'	5.15(수) 14:00~16:00	여성구인기업·구직여성	• 경력단절여성 선호 구인업체 • 4월 25일~5월 10일 전화·홈페이지 접수
쇼핑몰창업 & 프리마켓셀러 양성과정	6.10~9.2(월~금) 09:30~13:30	성남시 또는 인근지역 거주 미취업 여성	• 직업전문·직무소양·창업대비 교육 • 수강료 10만 원(수료·취업 시 각 5만 원 환급) • 6월 3일(월)까지 서류 준비 후 방문 접수 • 여성가족부 지원 ※ 본 과정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참조 바람
IP-R&D전략 전문가 양성과정	6.17~8.21(월~금) 09:30~13:30	성남시 또는 인근지역 거주 청년여성	• 직업전문·직무소양·취업대비 교육 • 수강료 10만 원(수료·취업 시 각 5만 원 환급) • 6월 7일(금)까지 서류 준비 후 방문 접수 • 여성가족부 지원 ※ 본 과정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참조 바람



- 교육 신청·문의
전화 및 방문 접수 031-718-6696
(홈페이지 www.snw.or.kr)
- 위치
분당선 미금역 1번 출구,
미도프라자 6층

성남시의료원 신임 이중의 원장을 만나다!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모범적 길을 제시할 것’ 시민들 기대 커



성남시의료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직접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다. 2013년 11월 옛 성남시청 부지에 착공한 성남시의료원은 총사업비 1,691억 원을 투자해 부지 2만4,711㎡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 5,684㎡ 규모로 509병상 24개 진료과를 갖춘 종합 병원으로 건립됐다.

2월 11일 준공을 마쳤고, 4월 1일 신임 이중의 원장이 취임해 개원 준비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신임 이중의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 외과-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분당서울대병원 부교수를 거쳐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특히 2003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 개원준비단에서 병원 개원 업무에 참여한 경험과 그동안의 응급치료 역량으로 성남시의료원 개원에 최적임자로 선정됐다.

이중의 신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성남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공공병원’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성남시 보건당국, 보건소와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 시

민들이 우리 의료원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립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봉사와 협력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료원의 기틀을 만들어 가는 데 직원 모두가 다시 힘을 내 보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이 원장은 흰칠한 키에 사람 좋은 푸근한 미소를 담고 있다. 그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가능하면 생명을 구하는 분야의 의료를 담당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최첨단 의학의 지평을 여는 역할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싶었고 환자의 삶의 질 개선보다는 환자의 생사를 다루는 분야를 선택하고 싶어” 의대생들이 기피하는 외과-응급의학과 분야 전문의가 됐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이 원장은 “제가 의과대학생일 때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으며, 아직도 많은 응급환자들이 응급실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제때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유명한 대형의료기관과 대학병원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응급의료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중증 응급의료를 좋은 품질로 대응하기 힘든 작은 의료

기관들이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암담한 현실을 토로했다.

그리고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뛰어넘어 응급의료의 정석을 보여줄 새로운 병원이 될 수 있다면 성남시의료원이 가야할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했다.

보수가 많지도 않고 끊임없이 많은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성남시의료원 원장이 된 동기에 대해 “의사 이력의 후기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응급의료인으로서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자책감이 자주 들었는데, 활동력이 점차 감퇴하는 의사 생활을 앞둔 국면에서, 이제 막 시작하려는 상당한 규모의 공공병원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자신을 사용해 보고 싶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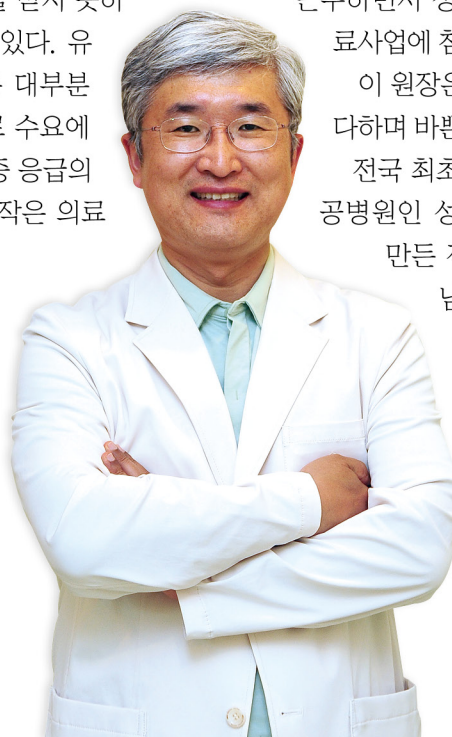
이 원장은 본인이 운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남시와의 인연이 매우 깊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성남시청과의 여러 가지 보건의료사업에 참여했고 성남과 친숙하다.

이 원장은 오늘도 의료원 개원에 최선을 다하며 바쁜 하루를 소화하고 있다.

전국 최초 주민조례 발의로 설립되는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이 주도해 만든 전국 최초의 병원이다.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걸어 나가는 시간들은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모범적 길을 제시하는 병원이 되리라 믿으며 시민들은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취재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시민들이 우리
의료원을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립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2019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성남시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체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중 생계가 어려워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자도 한시적(6.30까지)으로 지원한다. 선정되면 생계유지비, 의료서비스, 복지시설 이용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31-729-851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4·5학년으로 확대 시행 사후관리 모바일 앱 ‘덴티아이 성남’개발, 전국 처음

성남시는 초등 4학년 대상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5학년으로 확대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 건강 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11세와 12세 어린이에게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72곳 모든 초등학교의 4학년생 7,450명과 5학년생 7,920명 등 1만5,370명이 치과주치의 진료 혜택을 본다. 202곳 성남시 협력 치과(치과주치의)를 예약 방문하면 구강 위생 검사, 불소 도포 등을 해준다. 이와 함께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구강 보건교육을 한다. 학생의 구강 상태에 따라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도 무료로 해준다.

시는 치과주치의 전문 전산시스템인 모바일 앱 ‘덴티아이 성남’을 새로 개발했다. 부모가 스마트폰에 앱을 깔거나 인터넷을 통해 ‘덴티아이 성남’에 접속하면 자녀의 구강 정보, 치료 상태, 다음 검진일, 개인 맞춤형 관리 방법을 메시지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4046

가정의 달,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 **성남 온가족 도미노게임** 성남시 거주 7세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5월 15일(수) 오후 7시에 신나는 가족 도미노게임을 진행한다. 참여 희망 가족은 5월 1일(수)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 **다시 쓰는 부부 이야기** 5월 20일(월)~31일(금) 월·수·금요일(총 6회) 오후 7시부터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부부를 대상으로 관계회복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부부는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비용은 부부기준 2만 원이다.

■ **가족상담실 운영** 부부관계와 다양한 가족관계 갈등 상담, 이혼 전·후와 관련해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운영한다. 전화상담(031-755-9338)은 월~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사이버 상담은 센터 홈페이지(www.family.go.kr) 게시판을 통해 진행된다.

■ **노무상담실 운영** 성남시 거주 및 관내 재직자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6~9시 육아휴직, 부당해고, 퇴직, 임금체불 등 근로 상담을 진행한다. 사전 전화접수 후 상담이 가능하며, 내방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 및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다.

■ **양육상담실 운영** 성남시 거주 또는 관내 재직부모를 대상으로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오후 4~9시 자녀문제행동, 양육고충, 발달검사, 다중지능검사 등 양육상담을 진행한다. 사전 전화접수 후 상담이 가능하며, 자녀 동반 여부는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5-9327

수강생 모집합니다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제2기 단과과정

성남시 여성복지회관은 만 18세 이상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제2기 단과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식·양식 조리기능사, 베이킹, 경기민요, 스케치 등의 27개 과정 561명을 모집하며, 교육은 5월 20일(월)~8월 16일(금)까지 3개월 간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5월 2일(목)~5월 8일(수)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3만 원이며 교재·재료비는 본인부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다자녀 가정 등 수강료면제자는 4월 29일(월)~4월 30일(화) 방문해 우선접수할 수 있다.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031-729-2953~4

신중년근로자를 위한 1일 직업체험과정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재직자·퇴직예정자가 향후 제2의 인생설계 및 전직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만 40세 이상 재직근로자(비정규 또는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우선선발)를 대상으로 무료 직업체험과정을 운영한다. 희망자는 '목공! 어디까지 알고 있니' 과정(5월 18일(토) 오전 10시)은 5월 10일(금)까지, '브런치 카페 파스타&마카롱' 과정(5월 25일(토) 오전 9시)은 5월 20일(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사발전재단 031-8014-8519, 031-8014-8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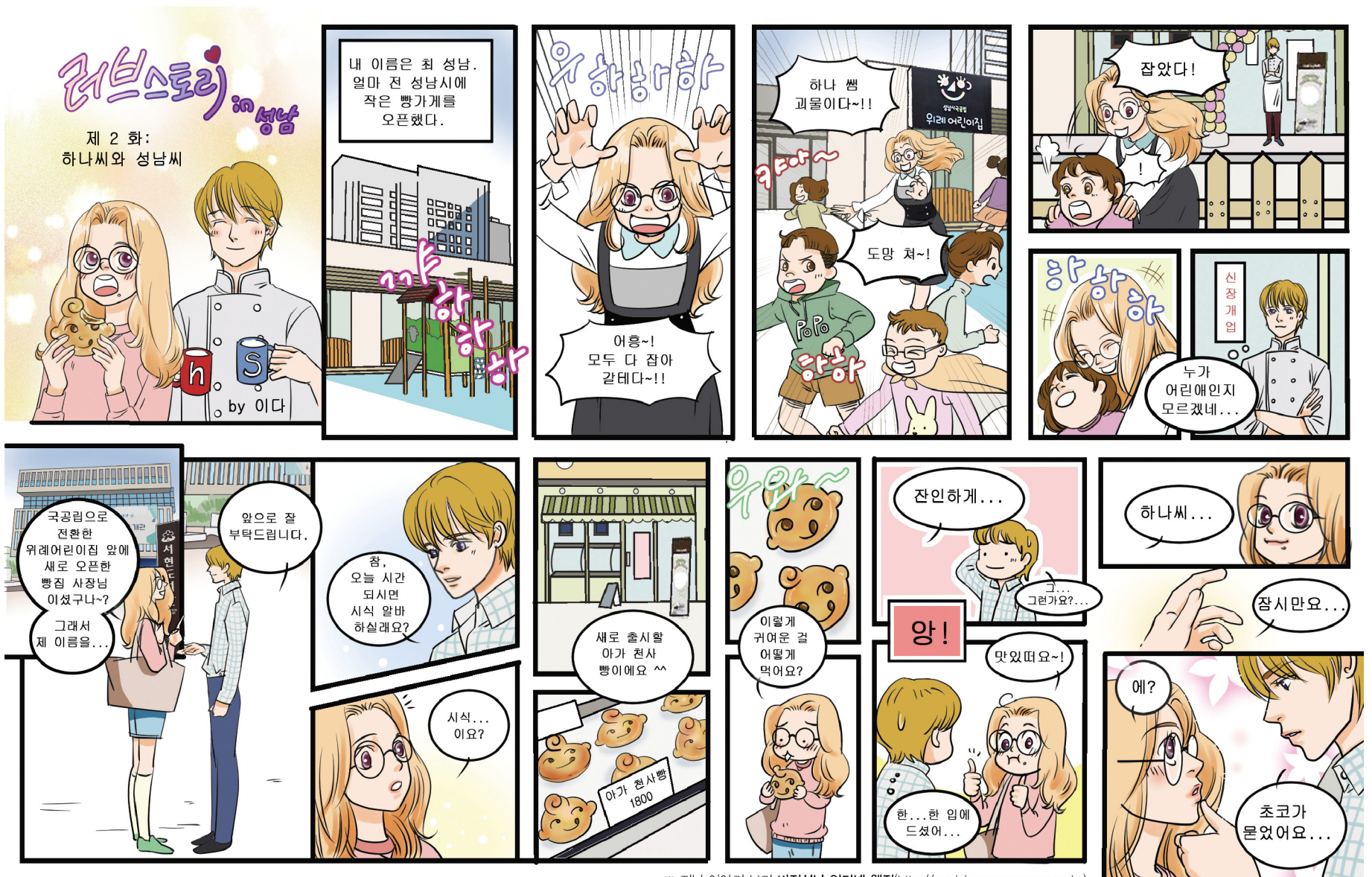
대학생·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2.2% 전액 지원

성남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올해 1학기분 학자금 대출이자 2.2%를 전액 지원한다. 4월 1일~5월 31일 대상 학생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옛 든든학자금)이나 일반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대학원 재학생이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2018년 5월 30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를 통해 주소 이력 5년의 주민등록초본, 재학 또는 휴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청소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지원 대상 대학·대학원생에게는 8월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계좌로 이자 지원액을 대신 상환한 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준다.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031-729-3633



행복마을공동체
—
야탑2동

인사하면 절로 미소 짓는 길, 야탑2동 인절미길 ‘아롱이다롱이 농장’ 가꾸며 정을 나누는 마을



1 텃밭에 모종을 심고 있는 주민들
2 아롱이다롱이 농장에 참여한 주민들
3 모종을 심고 있는 아이들
4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인사하며 미소 짓는 일,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가장 쉬운 일일 것이다. 바쁜 일상으로 각박해져가는 이웃 관계 회복을 위해 서로 인사 나누며 정감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야탑2동(동장 김연수) 행복마을공동체 인절미길이 있다.

인절미길

인절미길은 2017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야탑교와 하탑교 사이 탄천길 구간이다. 하천 어두운 다리 밑에 벽화를 그리고 꽃밭 조성, 무대 등을 설치하고 인사하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누구나 찾아와 인사하며 웃을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부족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차례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인절미길 추진공동체를 확대·개편해 도시농장을 기획했다.

아롱이다롱이 도시농장

올해 2월 농업기술센터 ‘1개 마을 1개 텃밭’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4월 인절미길에 텃밭을 조성했다. 작물박스 14개와 꽃 재배박스 13개를 설치했고 야탑2동 주민 모임·단체의 접수를 받아 작물박스를 분양했다.

분양을 받은 경로당, 어린이집, 초등학교, 가족농장 등 14개 단체 100여 명 주민들은 상추, 고추, 가지, 감자, 토마토 모종을 심고 11월까지 텃밭을 가꾸며 자연스런 어울림을 이어간다. 텃밭 수확물 일부는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주민 1,000명과 함께하는 인절미길 들밥 파티 계획

텃밭 작물의 수확시기인 6월에 텃밭을 분양받은 주민과 가족 등 1천여 명을 초대해 저녁 들밥파티를 계획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고기를 준비하고 쌈채소는 텃밭 수확물로 제공, 주민들은 간단한 도시락과 돛자리만 준비하면 된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작품발표회와 가족 장기자랑, 수확물 나눔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김현호 주민자치위원장은 “아롱이다롱이 도시농장”을 진행하기까지 주민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탄천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행사를 하고 있다. ‘들밥파티’도 일회용품 사용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절미길과 함께할 계획

녹지와 주관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명품 도시숲길 지정’ 공모에 선정돼 인절미길 부근 ‘소곤소곤 산책길’이 명품 숲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꽃길을 만들고 산책길에서 탄천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 텃밭과 산책길 등은 관내 학교와 연계해 자연체험학습 공간 역할도 하게 된다.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드는 인절미길이 **인정**을 나누며 **절로 미소** 짓는 길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행복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취재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생활법률 Q&A

임차인 확정일자

Q 김갑순 씨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법원으로 부터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경매 진행통지를 받았습니다. 김갑순 씨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기 때문에 자신이 배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갑순 씨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라고 해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것을 부

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물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도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와 각종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가 끝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기간 내에 확정일자가 찍힌 임

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잔액의 채권계산서를 첨부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라는 통지문을 받게 되면, 임차인은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경락인(낙찰자)으로부터 받은 명도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강제경매 진행절차

① 강제경매 신청 ② 강제경매 개시결정 ③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④ 매각준비 ⑤ 매각 실시 ⑥ 매각결정절차 ⑦ 매각대금납부 ⑧ 배당절차 ⑨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홍탁터) 031-729-2493

‘청년기본소득’ 모바일 또는 성남사랑카드로 올해 만 24세 1만2,986명 대상…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

성남시는 올해 만 24세 청년 1만2,986명에게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한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모바일(전자화폐)이나 성남사랑카드(전자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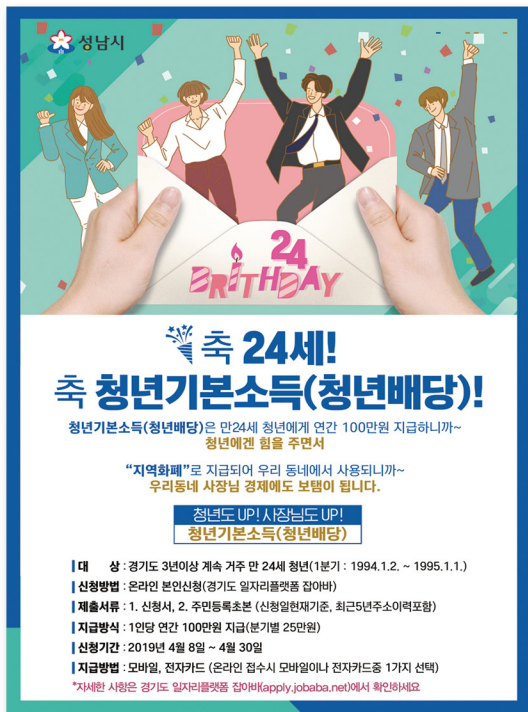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가 2016년 1월 전국 처음 도입한 청년배당이 전신이 돼 올해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했다.

시는 4월 30일까지 1기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3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이번 분기 신청 대상이다.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이뤄진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기준)을 업로드 해 보내면 된다.

자격 심사 후 5월 3일까지 25만 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해야 한다. 성남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분기는 6월 1~30일, 3분기는 9월 1~30일,



4분기는 11월 1~30일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다음 달에 지급한다.

모바일이나 성남사랑카드로 받는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2,720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해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사회복지과 청년복지팀 031-729-8502

“미세먼지 없는” 전기저상 버스 200대 도입한다

성남시내버스(주)와 협약...

구매비, 대당 1억9,200만 원 보조하기로

성남시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인 도로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성남시내버스(주)와 손잡고 2023년까지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200대를 도입한다.

4월 15일 체결한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200대 보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시는 성남시내버스(주)가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를 사들이면 3억1,200만 원 차량 가격 중 62%의 구매 비용을 보조한다.

성남시내버스(주)는 운행 버스를 새로 사거나 교체할 때 전기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한다. 올해는 7월 말까지 21대를 사들인다. 이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내년 40대, 2021년 40대, 2022년 70대, 2023년 29대의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를 구매해 운행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외에 올해 전기차 375대, 수소차 4대, 전기 이륜차 44대를 시민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편다. 이 밖에도 노후 경유차 230대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로 30대 전환, 천연가스 버스 57대 교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031-729-3713



?! 알아두면 좋아요

승용차요일제 시민실천 운동

도심의 교통체증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민들이 스스로 정한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 운동이다. 희망자는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제출 후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을 방문해 전자태그를 수령하면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교통기획과 교통기획팀 031-729-3655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성남시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8만6,092필지 개별공시지가(2019.1.1. 기준)에 대해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가격 열람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산정지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토지소재지 구청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2

가입하면 돈이 보이는 탄소포인트제

가정·상업시설·기업에서 온실가스 발생원인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을 감축하고 절감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로 환산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계량기가 부착돼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 희망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신청 또는 환경정책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031-729-3165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성남시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2019.1.1 기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실시한다. 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정구 세무과 031-729-5170~1, 중원구 세무과 031-729-6170~2

분당구 세무과 031-729-7170~1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1일(월)부터 6월 10일(월)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정수급을 권익위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우편,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110 또는 1398

성남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성남시는 생활 속 전기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8월 31일까지 성남의 가정·상가·학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무료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편다. 컨설턴트들이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이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찾아주고 사용실태를 진단, 그에 맞는 절약방법을 알려 주는 맞춤형 컨설팅 방식이다.

컨설팅 참여 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 되는 소정의 기념품(절전 멀티탭 등)도 제공한다. 다른 가정·상가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신청, 도움받을 수 있다. 선착순 모집한다.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031-729-3143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031-729-4813

책에 중독되다

분당중앙고 학부모 독서동아리 ‘중독’

꽃잎 흩날리는 화요일 아침. 책 들고 학교에 모인 엄마들을 만났다. 그 주인공은 정자동에 위치한 분당중앙고 학부모 독서동아리 ‘중독’의 회원들.

2층 학부모실 문을 열자 열띤 토론이 한창이다. 테이블에 놓인 책표지에 익숙한 샬라의 그림이 보인다. 유럽 문단의 매혹적인 작은 악마로 불리던 프랑수아즈 사강이 24살에 썼다는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낭만적이고 섬세한 심리묘사로 유명한 스테디셀러다. 스무 명 남짓의 엄마들이 나누는 소설 이야기는 진지하고 다채롭다. 구경만 하는 데도 묘하게 몰입된다.

“동아리 이름이 독특하고 인상적”이라고 하자, ‘중독’이라는 이름은 ‘분당**중**앙고 학부모**독**서회’를 대표하는 두 글자 ‘중’과 ‘독’자를 따서 만들었고, ‘거듭 읽어(重讀), 책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태(中毒)’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이런 센스 있는 이름을 지은 걸 보니 만만한 내공들은 아닐 성싶다.

‘중독’ 활동은 매달 2회씩 모여 책 한 권을 읽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독서후기를 기록한다. 진행된 책 목록에는 82년생 김지영, 랩걸(Lab Girl), 기억전달자(The Giver), 코스모스, 안

나 카레나, 열한 계단, 다윈의 서재 등 종류도 광범위하다.

이 밖에 문화체험으로 〈샤갈 러브 앤 라이프전〉, 〈바람을 그리다 신윤복·정선〉, 〈키스 해링전〉에 다녀오고, 연말 학교에서 주최하는 동아리발표회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해 책 소개, 캘리그라피, 책갈피 등을 만들어 나누기도 했다.

동아리를 계속 하는 힘이 무엇인지 묻자 이지연 씨는 “독서모임은 답보적인 만남이 아니라 다양한 책 속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도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항상 에너지가 넘칩니다. 책 편식을 피할 수 있고, 다른 이의 관점을 들으며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감히 도전할 수 없던 책들을 숙제처럼 쥐어짜 읽어냈을 때 성취감도 강합니다”라고 답했다.

독서동아리가 활성화되는 게 쉽지 않음에도 ‘중독’은 현재 4기 신입회원이 새로 들어왔으며, 1기부



분당중앙고 학부모 독서동아리 ‘중독’



터 관계가 돈독해 같이 여행 다니는 사이일 정도로 친해졌다.

회장 김지미 씨에게 번영의 이유를 묻자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 주는 게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독’은 학부모라는 공통점이 있어 학교소식, 학원, 진학,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빠른 상담이 가능할 뿐 아니라 좋은 책을 아이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학교와 선배님들 덕이기도 합니다”라며 미소를 띠었다.

취재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칭찬해 칭찬해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의 ‘우리나눔가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름다운 이웃입니다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색다른 나눔협약을 맺고 있다. 바로 2016년 시작해 지난 3월 14호점까지 개점한 우리나눔가게. 우리나눔가게는 정기 후원과 함께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업체와 연계해 이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웃이 이웃을 직접 돌보는, ‘나눔공동체’로 나아가는 지역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관은 월 1회 이상 후원금과 후원물품, 서비스 지원을 협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눔가게> 현판을 증정하고 있다. 외식업, 보건·의료업, 제과업종 등 현재 13개 업체와 후원협약이 이뤄졌고, 계속해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예전에 이웃사촌끼리 쌀도 나누고, 김치도 나누고 서로 도왔던 것처럼 이웃 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복지관 조경화 팀장의 설명이다.

“팔고 남는 것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는 양을 미리 만들어 주시는 업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 인근 업체들에게만 나눔가게를 홍보했는데, 이제는 성남시 전역에 나눔가게가 생겼다. 반찬이 필요한 이웃에게 반찬을, 안경이 필요

한 이웃에게 안경을 지원하는 등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월 1회 기부를 기본으로 하지만, 점차 횟수가 늘어 수시로 돕는 업체도 많다.

금곡동에서 장인족발을 운영하는 조만식 대표는 “청솔 복지관의 김재일 관장님이 정말 이웃사랑에 헌신적이셔서 늘 존경스럽습니다. 후원금도 내지만 복지관에 쿠폰을 드려서 필요한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어르신들이 참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울컥해요. 앞으로도 우리 이웃에게 꾸준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는 다짐을 전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어르신들, 장애인 분들이 안경을 맞춘 후 잘 보인다고 기뻐하실 때면 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직업으로 도움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뿌듯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봉사하려고 합니다.” 서현동 아이원안경원 하기철 대표의 마음이다.

이제는 기부가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됐다고 말하는 나눔가게들. 묵묵히 이웃을 위해 지원하고 돕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웃들이 있다.



■ 우리나눔가게 현황

상호명	지원내용
장인족발	CMS정기후원, 외식쿠폰 제공
본죽	어르신 죽 지원
크리스피크림도넛	도넛 지원
모두클릭	기념품 제작 할인
(주)링크팜스	상추 및 모종 지원
아이원메디칼	안경제작 지원
무한통삼겹살	CMS정기후원
달달한김쌈	매장이용 쿠폰 지원
동압대	저소득층 외식 지원
에센브로	매장이용 쿠폰 제공
경희미르한의원	한방소화제 지원
런치앤디너	CMS정기후원
바로이맛	밀반찬 지원

조경화 팀장은 “나눔가게는 쿠폰, 기부금, 후원물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고, 기부에 대해 소득공제도 가능하다”며 “우리나눔가게처럼 착한 나눔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웃의 힘으로 이웃을 받쳐 주는 아름다운 이웃. 아름다운 이웃은 힘이 세다. 그 힘이 점점 더 커져가길,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해본다.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마음으로 빛는 술, 가양주

마음을 음식으로 전통을 소명으로 이어가다

“술을 빚거나 고를 때 어떤 자리인지

어떤 분인지 건강은 어떠한지 곁들이는 음식의
소화까지 생각한다.”

“가양주는 조상을 모시고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다.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갖고 예를 갖추 빛낸다.”

— 한국전통주문화연구소 최덕용 소장

조선시대 가전비법(家傳秘法)으로 빛는 그 집안만의 술, 가양주(家釀酒)는 조상을 모시고 손님을 맞는 예(禮)이자 도리였다. 이름난 집안에 맛있는 술이 있다는 ‘명가명주(名家銘酒)’라는 말까지 생겼다.

술맛은 곧 집안의 길흉으로 이어졌다. 조상에게 올리는 술이 잘못되면 불경이고 자식의 혼인에 내놓는 술이 맛이 덜하면 자식의 앞날이 어두울 거라 했다. 술이 시어지면 집안에 근심이 생긴다고 여겨 부인들은 속성주를 빚거나 몰래 좋은 술을 얻어왔다. 부인들은 집안 전통의 술맛과 향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술과 어울리는 음식도 발전해 집안만의 내림음식이 생겨났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경주 최부자택의 ‘교동법주(중요무형문화재 86-3호)’가 대표적인 가양주다.

이 최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최덕용 소장은 어려서부터 제사와 손님을 위한 술빚기와 상차림이 친숙했다. 손가락으로 맛보는 술이 달짝지근 맛있었다.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집안 어른들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좋은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큰 봉사고 공덕”이라며 반대하지 않았다. 아들의 앞날을 걱정한 어머니는 반대했다. 당시 요리사에 대한 인식과 대우는 지금과는 달랐다.

최 소장은 집안 도움 없이 아르바이트로 유학자금을 마련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유럽과 중국에서 10년 넘게 요리사 경력을 쌓았다. 해외에 있는 동안 우리 발효음식의 우수함을 다시 발견하고 한국에 올 때마다 발효음식과 전통음식 권위자를 찾아 공부했다.

귀국 후에는 한국발효식문화연구원과 한국전통주문화연구소를 설립해 가양주를 연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연구소 아카데미에는 발효음식마스터, 주향사(酎香師), 고문헌 연구 등의 여러 교육과정이 있으며 80기가 넘는 교육생들을 배출했다.

최 소장은 전통음식에 대한 배움과 열정이 끊임



한국전통주문화연구소 최덕용 소장

없다. 지금도 서울로 가서 전통음식을 공부한다. 가양주를 연구하는 동안에는 남한산성 마을에서 집안 대대로 누룩을 빚는 명인에게 7년 동안 배웠다.

최 소장은 10년 전에 복정동으로 연구소를 옮겼다. 복이 많은 집안의 우물이라는 복우물의 유래 때문인지 술을 빚으면 잡내가 나지 않고 발효가 잘 된다고 한다.

최 소장은 가양주를 제대로 조명해 널리 알리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한다. 연구소 근처에 양조장을 열어 사람들에게 가양주를 알리고 싶다며 “가양주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함께 발전시켜 달라”고 했다.

취재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배우면서 봉사하는 국악연주단 ‘올레’

성남시 평생학습원 우수 학습동아리

성남시 평생학습원은 우수 학습동아리를 진흥·육성하기 위한 2019년 성남시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을 공모해 우수 학습동아리를 선정했다. ‘올레’는 우수 학습동아리 중에서도 단원들 간 화합이 잘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가 열심인 동아리다.

올레는 2014년 오리초등학교 학부모 동아리로 출발해 현재는 플루트 1명, 클라리넷 1명, 피아노 1명, 해금 13명 등 지역사회단원까지 확대해 활동하는 16명의 음악연주단이다. 올레 단원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시간의 레슨을 받고 자체적으로 2시간 씩 연습을 하고 있다.

올레는 재능기부에도 적극적이다. 오리초등학교와 하안마을복지관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으며 교육청주관 어울림한마당, 코이카 플리마켓 축하공연, 하안마을복지관의 희망음악회, 정기 공연 등 꾸준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기부도 빼놓을 수 없다. 1인 1악기를 권장하는 학교 방침에 따라 오리초등학교의 해금 수업에 보조교사로 들어가 학생들을 지도한 경력이 있으며, 작년부터는 활동을 희망하는 초급 단원을 모집해 무료로 레슨을 진행하고 향후 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올레의 특징은 악기를 이중으로 연주하는 단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양경은 회장은 해금과 장구를, 원현애 씨는 해금과 바이올린을, 조수미 씨는 우쿠렐레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올레 단원 16명은 각자 일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홍보와 행정, 음악 선정, 공연 시의 상담당 등 모두가 올레를 위해 자신의 재능대로 기여하고 있다.

2018년부터 ‘찾아가는 음악회’를 처음으로 구상해 복지관에서 공연도 하고, 탄천초등학교 5학년 음악수업에 참여한 것은 단원들이 꿈은 최고의 보람된 활동이었다.

양경은(46·구미동) 회장은 “주부는 자신의 취미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돈과 시간이 있어야 하고 혼자 하면 슬럼프도 찾아온다. 올레는 단체로 하다 보니 지지치 않고 할 수 있고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대원들이 초·중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인데 애들 키우면서 바쁜 시간 쪼개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단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초창기부터 계속 활동하는 박시내(47·구미동)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좋아하는 음악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어 찾아가는 연주의 기쁨이 크다.



올레단원들(왼쪽부터 김성옥, 남궁선, 양경은, 이승희, 조수미, 원현애, 최문정, 이인혜, 박정옥, 박시내 씨)

회원들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을 만나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까’ 생각하면 설레고 기대된다”고 활동소감을 전했다.

초창기 멤버인 김성옥(42·구미동) 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1인 1악기를 시작해 엄마로서 해금을 가르쳐주고 싶어 시작했는데 6년을 하면서 삶의 활력소가 됐고 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배운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기초문화, 문화예술, 학력보완, 인문교양, 직업능력, 시민참여 등 6개 분야에서 230여 개 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발전, 인적 자원 발굴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동시에 제시해 줄 수 있는 학습동아리 ‘올레’의 봉사연주는 오늘도 진행 중이다.

취재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1분기 모범시민 표창 수여식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3월 29일(금) 의회 로비에서 '1분기 모범시민 표창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상자, 시의원, 축하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표창패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표창 수상자는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된 시민들 가운데 공적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각 동별 1명씩 총 50명을 선정했다.

박문석 의장은 “그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성남시가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마을공동체 간담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조정식)는 3월 14일(목)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 마을공동체 만들기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정미 마을공동체 만들기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마을활동가들과 행정교육

체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등이 참석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진행사항 등 내실 있는 센터 설립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은 “마을 만들기에 성남시의회, 시 집행부, 마을활동가들이 함께 토론의 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스마트 모빌리티 토론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마선식)는 3월 15일(금)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시 맞춤형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최첨단 충전·동력 기술을 융합한 전기로 움직이는 차

세대 교통수단이며,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주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형 기술로 정의된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토론을 거쳐 미래를 선도하는 성남시의 교통환경 조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의정

성남시의회 전경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00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새로운 100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4대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출범



성남시의회는 3월 16일(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대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했다.

교부식은 제4대 청소년 의원들에게 당선증과 배지 수여, 청소년의원 윤리헌장 낭독, 기본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박문석 의장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 행복의회의 방향,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한 조언 등을 전했다.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는 성남시 17만 청소년을 대표하는 참여기구로 청소년들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자 구성된 법적 기구로, 이번 제4대 행복의회에서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청소년 선거의 과정을 거쳐 총 35명의 청소년의원이 선출됐다.



경제환경위원회, 아시아실리콘밸리 간담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안광환)는 3월 25일(월) 시의회 회의실에서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간담회를 열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수정 위례지구, 판교1:2:3 테크노밸리,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분당 벤처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로 이어지는

"아시아 최대 실리콘밸리 조성"이라는 큰 그림으로 집약된다.

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듣고 4차 산업 원천 기술과 융합 신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등 성남시를 첨단산업의 성지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차세대 일자리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성남시의료원 현장방문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임)는 4월 9일(화) 개원준비가 한창인 성남시의료원 현장을 방문했다. 성남시의료원은 2월 11일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에 연면적 8만5,684㎡, 509병상 규모로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건립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료원

현황보고를 들은 후 담당 시설장들과 함께 격리병실, 심혈관센터, 수술실 등을 둘러보며 의료원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화복지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병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3.1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합동교육(3.18)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4.5)

「**평**의가 전하는 건강이야기

암 치료에 효과적인 ‘면역관문억제제’



김진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면역력이 약하면 암에 잘 걸릴까요? 암 환자 중에 자신의 면역력이 떨어져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저 하된 면역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검증된 항암치료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도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집착하는 행동도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역관문억제제’란

실제로 암과 면역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한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최근 암치료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는 면역치료 약제가 바로 ‘면역관문억제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반응이 너무 과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관문’이 있는데, 면역관문억제제가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침입,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있을 때 이를 적절하게 이겨내기 위해 면역체계를 활성화합니다. 대표적으로 감기나 폐렴 등의 감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반응으로 열이 나는 경우가 면역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염증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롭기 때문에, 우리 몸은 면역관문을 통해 과도한 면역반응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이 관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역 항진에 의한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며, 면역 상태가 항진이라는 것은 인체의 높은 염증반응 때문에 염증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아울러 암세포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 또한 면역관문억제제입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살아남기 위해 면역관문을 조종해 마치 정상세포인 것처럼 꾸며 면역세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때 면역관문억제제가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피해가는 기전을 억제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해 없앨 수 있게 됩니다.

치료 효과는

면역관문억제제의 효과는 기존의 일반 항암치료와는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반응을 조절해 치료효과가 길게 지속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치료 반응은 보통 2개월 안에 나타나며 암의 종류와 관계없이 효과를 보입니다.

여러 암종에서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나 폐암, 신장암, 림프종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암종에서 면역관문억제제가 기존 항암치료보다 우월한 것으로 밝혀졌고, 암의 표준치료로 면역관문억

제제가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면역세포의 작동을 제어하는 표지자가 많이 발현되는 경우나 암세포의 돌연변이가 많은 경우 치료 효과를 보이며, 현재 임상 진료에서는 이를 검사할 방법이 있어 대상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작용은

면역관문억제제는 기존의 항암치료와는 다른 종류의 약제로 구역, 구토, 탈모 등 일반적인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면역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기존 면역치료와도 달라 선천성 면역(비특이적 면역) 부작용도 덜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편하게 치료받을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전에 따라서는 암 외에 다른 장기에 염증을 일으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약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 약제 관련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부작용으로는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문제가 될 수 있는 폐·피부·장 염증 등의 중증부작용 발생률은 약 2% 미만입니다.

면역관문억제제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약제의 적용 범위 역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보험급여가 일부에서만 적용돼 임상 진료에서는 사용 제한이 있지만, 현재 면역관문억제제를 적용하는 임상시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신의 암이 면역관문억제제 치료에 해당되는지는 담당의사와 상의해 확인한 후 치료할 것을 권합니다.



건강교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 이용요금(기본) : 시간당 9,650원(야간·휴일 추가 부담)
※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으로 본인부담액 시간당 1,447~9,650원
- 내용
시간제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및 학원의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등
- 만 3개월~12세 아동(1회 2시간 이상 신청)
종일제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만 3개월~36개월 아동(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신청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구(가나다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 미지원 가구(라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신청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8889-1511

성남시 한방난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대상 : 성남시 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양방 검사상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 경우)
- 모집기간 : 4월부터 15명 선착순
- 내용 : 난임부부 여성의 건강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방난임 지원사업 추진, 난임 여성 3개월간 한약 지원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906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 일시 : 5.11(토) 07:00~10:00(개회식 07:30)
- 장소 :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대상 : 성남시민
- 구간 : 왕복 4.5km(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중원구청 사거리 ↔ 도촌사거리(반환)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기념품 : T-셔츠(쿨맥스, 입장 선착순 제공)
- 경품 : 양문형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다수

중원구 행정지원과 총무팀 031-729-6022



장서각 산책

식목일(植木日)과 친경례(親耕禮)



이 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봄날의 4월에 빨간색 공휴일 하나 없는 게 아쉽다. 이럴 때면 생각나는 게 식목일이다. 4월 5일이면 나무를 심기 위해 분주하던 때가 있었다. 1949년 공휴일로 제정된 식목일은 1960년 잠시 제외된 적도 있지만 2005년까지 이어졌다. 이날이면 관공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산과 들로 나가서 나무를 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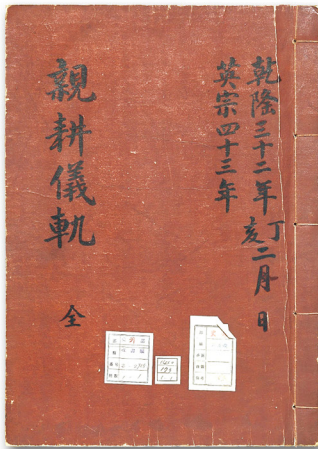
조선시대 이맘때면 중요한 행사가 친경례(親耕禮)였다. 식목일이 4월 5일로 정해진 것도 이 친경례와 관련됐다. 1493년(성종24) 3월 10일(음력)에 성종이 선농단에 나아가 제사 지내고 몸소 쟁기질(親耕)을 했는데 그날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5일이다. 친경례는 『예기』 「월령(月令)」에 나온다.

매년 정월에 좋은 날을 택해 천자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몸소 밭갈이를 하고 이를 끝내면 모두 모여 노주(勞酒)를 마셨다. 한대(漢代) 문제(文帝) 때부터 친경례 시 선농(先農)에게 제사했는데 이후 선농제는 친경례와 무관하게 매년 거행됐다. 서울 동대문 밖에 있는 선농단이나 선농제는 모두 이와 연관이 있다.

『예기』에는 친경을 정월에 거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규정을 좇아 고려시대에는 정월에 선농제를 지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월은 농사일을 시작하기에 이른 시기였다. 아직 땅이 다 녹지 않아서 쟁기질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그 날짜를 경칩(驚蟄) 후 첫 '해일(亥日)'로 변경했는데 한식이나 청명 때였다.

농업사회였던 조선시대 친경례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친경례는 생각보다 많이 거행되지 않았다. 매년 선농제는 거행했지만 국왕의 친경례는 태조부터 순종 때까지 16회에 그쳤다. 왜 그랬을까?

이는 흥겨운 축제와 척박한 현실의 상충 때문이었다. 친경례는 농사일을 권면하는 의식이고 봄의 축제였다. 친경례는 궁궐 속에 있던 왕을 나오게 한다. 궁



1767년 친경과 누에, 고치따기 과정을 기록한 『친경의례』

궐에서 선농단까지의 문, 도로, 교량 등은 색종이와 색천으로 꾸며지고, 화려한 의장과 가마가 그 길을 통과한다. 그 앞에 가면을 쓴 처용이나 재인(才人)들이 먼저 지나가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환궁할 때면 기로(耆老), 유생(儒生), 기녀(妓女)들이 길에 나와 왕에게 가요를 바치며 그 업적을 칭송했다.

이 모든 것이 당시에 큰 볼거리였다. 사람들은 이를 '관광(觀光)'하기 위해 전날부터 천막을 치고 먹을거리를 장만했다. 양반이나 천민이나 모두 구경하러 거리로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친경례를 '태평성대'의 표상이라고 했다.

성종대 이후 여러 왕들이 친경례를 거행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재난이 이어지면서 농사 걱정이 심해지고 풍년에 대한 바람도 간절해졌다. 왕은 친경례로써 백성을 권면하고 싶었다. 그러나 친경례에 딸린 축제적인 행사들이 재난의 상황에 맞지 않다며 그 실행은 유보됐다. 친경례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앞섰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위기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17세기 조선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허덕이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태평성대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광해군 이후 100여 년이 지난 1739년, 영조가 마침내 친경례를 거행했다. 이때에도 흉년으로 허덕이는 시기였기에 친경례를 거행했지만 나례, 결채, 가요 등은 모두 제거했다. 친경례의 원래 목적인 권면(勸勉)과 중농(重農)의 정신을 살리려고 했다. 이후 영조는 세 번의 친경례를 더 거행했다. 농사일보다 그 행사에 즐거워했던 사람 역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축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축제가 경제의 동력이 될 만큼 중시됐다. 축제가 없는 삶이란 안쓰럽지만 현실과 다른 축제도 원치 않는다. 내일의 희망과 노동의 건강함으로 가꾸는 귀한 축제의 봄이 되길 바란다.

음악칼럼

아하! 오케스트라 어렵지 않아요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 &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는 아이들을 위한 관현악 동화다. 주인공 피터가 할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홀로 숲으로 들어가 무시무시한 늑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관현악곡이다.

동화 속 캐릭터들이 일정 관현악기와 연결돼 소리로 인물을 상상하며 감상할 수 있어 흥미롭다. 숲속 이곳저곳을 겁 없이 돌아다니는 피터는 경쾌한 현악기가, 음흉한 늑대는 프렌치 호른이, 근엄한 할아버지는 낮은 음의 바순이,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새는 높은 음의 플루트가, 호수에서 헤엄치는 오리는 오보에가, 새를 잡으려 덩불 아래로 낮게 움직이는 고양이와 클라리넷이, 사냥꾼의 총소리는 북이 담당한다.

프로코피에프가 직접 해설을 썼으며, 이후 여러 지휘자, 영화배우, 가수가 해설자로 유명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음반들이 있다. 지휘자 레오나르드 번스타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 영화배우 손 코네리, 가수 데이비드 보위의 해설뿐 아니라 지휘자 아바도와 함께 인형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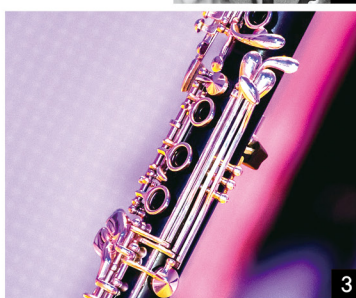
니메이션에 참가한 가수 스팅의 해설도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다.

아직 만화를 좋아할 아이들을 위해 디즈니가 만든 《피터와 늑대》도 있다. 1945년 디즈니 작품은 각 악기와 해당 캐릭터를 그림으로 소개해 어린 아이들이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실제 오케스트라 연주 영상을 보고 싶다면 브람웰 토베이 지휘 및 해설의 밴쿠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추천한다. 각 악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유익하다.

클래식 입문에 좋은 또 다른 작품으로 영국 작곡가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소개한다.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가 어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클래식 음악 입문을 돕는다면,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은 관현악을 구성하는 악기들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한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네



1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2 벤자민 브리튼
3 클라리넷
4 플루트



악기군인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그리고 타악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들의 음색, 역할, 성격 등을 설명한다.

1994년에 나온 알랭 롱바르 지휘의 스트라스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음반을 추천한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가 해설을 맡아서 더 귀 기울이게 되는 음반이다. 유튜브에 '브리튼 조수미'를 입력하면 찾을 수 있다.

취재 조윤수 기자 choyoonsoo@gmail.com



성남시립(은행)식물원 5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일정	대상	내용
곤충나라 새(鳥)나라	월수·금요일 오전/오후	유치부~초등부	새와 곤충 관찰
숲속책방의 생태이야기	월요일 오전	유치부	동화 속 생태이야기와 야외활동
숲에서 옹기종기	화·목요일 오전/오후	유치부~중등부	자연체험학습
흙산놀이터	매주 수·금요일 오전	유치부	흙 촉감 놀이
	격주 토요일	가족	
사계절 생태놀이터	화·목요일 오전/오후	유치부~초등부	놀이, 관찰, 체험, 해설 등
몸튼튼! 마음튼튼!	월수·금요일 오전/오후	유치부	자연놀이와 키즈요가
바스락 숲놀이터	월·금요일 오전/오후	유치부~초등부	음악체험활동과 숲해설
전래놀이이야~ 놀자	수·금요일 오전/오후	유치부	전통문화체험
뚝딱뚝딱 공작교실	격주 토요일 오후	가족	가족공작 프로그램
은행 숲태교	4.26(금) / 5.3(금) / 5.10(금)	임산부·부부	숲 예술 감상태교
동서남북 구석구석	월1회 1주차 토요일 오전	초등부 가족	나침반과 지도로 미션 해결
우드버닝에 빠지다	격주 토요일 1·3주 오후	초등부	목공 소품에 그림 그리기

※ 프로그램 개설 여부와 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우천 시 교육 진행

- 교육시간 : 전화문의(사전협조 필요)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접수

성남시립(은행)식물원 031-729-4314/4319, <http://epark.seongnam.go.kr>



5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일정	대상	내용
숲놀이학교	화수·목·금요일 10:00~10:50, 11:10~12:00	5세 이상 단체	계절에 따른 놀이와 체험 우천 시 우의(우산)준비
환경아 놀자!	화요일 11:00~11:50	5~7세 단체	환경 관련 동화 및 체험 활동
기후랑 나랑	화요일 11:00~11:50	6~7세 단체	기후변화 체험 놀이
자연관찰학교	화요일 15:30~17:00	8~11세 어린이	생태 체험 정기 모니터링 활동
에코키즈팩토리	수요일 13:00~14:00, 14:30~15:30	8~10세 단체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해 배우고 천연제품을 만드는 환경 안전 교육
판교 생활환경	금요일 10:30~12:00	성인	환경이야기 및 체험 활동
에코키즈카페	금요일 15:30~17:00	5~7세 (부모1명+아이1명)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하는 생태 환경 체험 활동
새친구 동고비	토요일 10:00~12:00	7세 이상 가족	가족과 함께하는 조류탐사
신나는 전래놀이	토요일(가족), 일요일(개인) 10:30~12:00	가족(5세 이상 가족 개인(8~10세))	전통의 놀이방법과 직접 만드는 놀이도구들로 하는 전래놀이
하나되는 기후가족	토요일 15:00~16:30	8세 이상 가족	기후변화 지식을 배우는 체험 활동
리틀 포레스트	일요일 13:00~14:30	5세 이상 가족	가족 생태 힐링 활동
가치 찾는 에코공방	일요일 15:30~17:00	5세 이상 가족	재활용 에코 창작 가족 활동
우리씨앗 나눔행사 (현장접수)	5.18(토) 10:00~12:00, 13:30~5:30	5세 이상	씨앗 나눔과 씨앗 카드 만들기
오늘은 내가 놀이대장! (현장접수)	5.5(일) 10:30~16:30	7세 이상 가족	환경과 생태에 대한 놀이

※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꼭 확인바랍니다.

※ 참여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신청 / 매월 1일(휴일인 경우 전후)부터 다음 달 분 예약 가능

판교환경생태학습원 031-8016-0100, <http://ppark.seongnam.go.kr>



성남시립(은행)식물원 목공체험장 5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일정	프로그램명	교육일정
3단서랍장	화요일 오후 / 주말 오후	월넛도마	금요일 오후 / 주말 오전
캠핑테이블	수요일 오후 / 주말 오전	수낱꽃이	목요일 오후 / 주말 오전
다용도정리박스	목요일 오후 / 주말 오전	양념 선반장	주말 오후

- **교육시간** : 오전 (09:00~12:00), 오후(14:00~17:00)
- **주말 오후 프로그램** : 초등부 이상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주말 오전, 주중 프로그램** : 청소년(고등부) 이상

성남시립(은행)식물원 031-729-4314/4319, <http://epark.seongnam.go.kr>



맹산환경생태학습원
 MaengSan Eco Center

프로그램명	교육 일정	대상	내용
에코 키즈 A	화~금	유아단체(5~7세)	5월-곰돌이를 애벌레
에코 키즈 B	오전/오후	초등단체	
맹산숲속이야기	토·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 월별 주제에 따라 진행
		초등가족	
가족목공교실	토·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목재의 사용 이유를 알고 소품 만들기 유아가족·액자 / 초등가족·냄비반침대만들기
		초등가족	
병아리환경교실	매주 금요일 오전	유아(3~4세)	오감 체험 중심의 생태수업
새집모니터링단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가족	인공새집 만들기, 조류관찰 등 새에 관심 있는 가족 모니터링단
엄마의 지구사용설명서	매주 화요일 오전	성인	집에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환경이야기와 만들기 활동
절기따라 생태원가요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가족	절기에 맞추어 전통놀이 및 먹거리 활동
열두 달 환경교실	매주 금요일 오전	유아단체	환경 주제로 활동하는 실천형 프로그램
이야기극장	수요일 오전	유아단체	환경생태 동극 및 오감 체험놀이, 인형 파는 소녀(미세먼지)
목재문화교실	금요일 오전	성인	기후변화와 목재문화(3차시), 생활소품만들기 등 목재를 활용하는 수업
생물 다양성의 날	5.19(일) 오전	가족	생물다양성의날 행사, 생태원에서 미니 바이오폐리츠 개최
누에한살이 (전시실프로그램)	토·일요일 오전/오후	가족	누에를 키우며 한 살이에 대해 배우고, 생명의 소중함 느끼기
함께하는 자연	별도협의	장애인	장애인 단체를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에코틴	별도 협의	중·고등	단체 별 주제에 따라 진행
맹산공작소	주말	가족	한지를 이용한 한지공예작품 만들기
	평일 오전	성인	열매, 나뭇잎 등을 이용한 자연물 만들기
자원봉사활동	별도 공지	개인·단체	도슨트, 환경 정화, 작은도서관, 모니터링 등

※ 프로그램 개설 여부와 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개인 및 가족 예약 매월 5일 전후 홈페이지에서 신청 /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 및 준비물이 있는 경우 사전공지

맹산환경생태학습원 031-702-1192, <http://mpark.seongnam.go.kr>



바야흐로 청소년 세상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수정 청소년수련관	제27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6.10(월)~6.14(금)	수련관 공연장	초등3~고등3	• 가요, 합창, 댄스, 무용, 사물놀이, 문학시, 산문) 등	5.15(수)~5.30(목)	031-729-9232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5.18(토) 13:00~17:00	희망대공원 광장	초등~중등	• 그림그리기, 문화예술 체험활동, 축하 공연 등(참가비 5천 원)	4.15(월)~ 5.11(토)	031-729-9255
충원 청소년수련관	성년의 날 기념식	5.18(토) 14:00~17:30	수련관 광장	청소년, 시민	• 부모와 함께하는 전통성년례 의식 재현, 특별 강연, 체험부스	4.15(월)~마감시	031-729-9352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6월중	skn테크노 파크	청소년, 시민	• 체험부스 및 벼룩시장, 재능나눔 공연에 참여자 모집	전화문의	031-729-9338
서현 청소년수련관	공정무역활성화 지원사업[꼬마에바]	5~6월	수련관 및 활동지	초등5~6	• 공정무역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5.1(수)~마감시	031-729-9436
	창·마달 & 청소년어울림마당 벼룩시장	6.8(토)	수련관	청소년, 시민	• 창·마달 & 청소년어울림마당 벼룩시장 참가자모집	4.22(월)~마감시	031-729-9436 031-729-9433
정자 청소년수련관	성남29초 스마트폰영화제	6.15(토) 13:00~16:00	수련관	청소년	• 청소년 영화제 참가자 모집, 환경, 인권, 청소년 관련 영상제작	~6.1(토)까지	031-729-9535
	리얼스토리 in 아시아	8.2(수)~8.30(금) 8박 10일	수련관	청소년	• 한국전쟁과 참전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기획 봉사활동, 참가비 20만 원(항공료 및 개인경비 자부담)	3.18(월)~5.3(금)	031-729-9534
판교 청소년수련관	꿈飛UP 프로젝트 2기 모집	7.26(금)~8.8(목) 12박 14일	미국(동부)	초5~고등	• 미국 동부 도시 및 글로벌 기업방문, IV리그 대학탐방, 미국 청소년과 함께 5일간 캠프 진행(뉴저지주)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031-729-9652
	청소년 자유시장	5.11(토) 13:00	수련관	청소년, 시민	• 기(技)프트 마켓(청소년과 시민의 재능나눔 봉사), 벼룩시장(중고, 제작 물품 거래 및 기부활동)	홈페이지 참고	031-729-9635
양지동청소년 문화의집	해찬양짓말 거리페스티벌	5.11(토) 11:00~15:00	을지대	청소년, 시민	• 시민장터, 먹거리 장터, 이색 체험부스, 공연	전화문의	031-729-9811
	사랑의교실	연중	문화의집	청소년	• 경찰단계 청소년들의 인성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전화문의	031-729-9813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	연중 평일 09:00~18:0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만9~24세 학부모 등	•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상담 •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문의	031-756-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꿈드림」	연중	지원센터「꿈드림」	학업중단 청소년	• 전문상담, 학업복귀, 건강검진 지원, 문화예술, 진로 자립지원 등	상시접수 전화문의	031-729-9171~6



도서관에서 놀자!

수정도서관

Table with 5 columns: 구분, 행사명, 대상, 행사일, 접수. Rows include book reading events for children and adults, and a storybook reading event for young children.

* 일정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중원도서관

중원도서관 031-752-3913, www.snlib.go.kr/jw

Table with 5 columns: 구분, 행사명, 대상, 행사일, 접수. Rows include book reading events, a VR world travel event, and a laser kids' performance.

* 일정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수정도서관 031-743-9600, https://www.snlib.go.kr/sj

Table with 5 columns: 구분, 행사명, 대상, 행사일, 접수. Rows include book reading events for children and adults, and a family photo album making event.

명사 초청 강연 5월 성남 행복 아카데미 강연

Table with 5 columns: 회차, 강사, 일정, 강의주제, 주요활동. Rows feature lectures by Jeon Yeong-su and Jang Hee-yeung.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성남시민 누구나, 장소: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
- 인원: 선착순 600여 명, 문의: 성남시 평생학습과 031-729-3082

이달의 공연·전시

MAY 2019 5



한국조이양상을 제19회 정기연주회
일시: 5.3(금) 19:30 장소: 앙상블시어터

코리안 솔로이스츠의 올 댓 챔버
일시: 5.4(토) 14:00 장소: 티엘아이 아트센터

뮤지컬-영웅
일시: 5.4(토)~5.12(일) 화목금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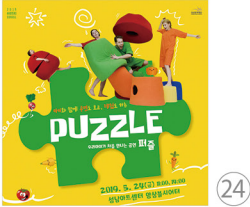
재능나눔 '나눔모락, 기쁨모락' 효 콘서트
일시: 5.10(금) 19:00 장소: 앙상블시어터

첼리스트 김민지 WITH 서울비르투오지
일시: 5.11(토) 15:00 장소: 티엘아이 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차이콥스키,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
일시: 5.16(목) 11:00 장소: 콘서트홀

마스터즈 시리즈1-안티고네
일시: 5.17(금) 20:00 / 5.18(토) 15:00, 19:00

피아니스트 주희성 WITH 스누투오지 앙상블
일시: 5.18(토) 15:00 장소: 티엘아이 아트센터



성남시립교향악단 162회 정기연주회
일시: 5.24(금) 19:30 장소: 콘서트홀

마스터즈시리즈3-우리아이가 처음 만나는 공연, 퍼즐
일시: 5.24(금) 11:00, 14:00

오페라-라 트라비아타
일시: 5.25(토)~5.26(일) 17:00

바리톤 이응광 독창회
일시: 5.28(화) 20:00 장소: 티엘아이 아트센터

플루티스트 이예린 & 한여진 듀오콘서트
일시: 5.31(금) 20:00 장소: 티엘아이 아트센터

성남청년작가전1
일시: 4.5(금)~5.26(일) 10:00~18:00



MOKA 트라이앵글
일시: ~6.16(일) 10:00~19:00(월요일 휴관)

Calendar for May 2019 showing dates from Sunday to Saturday.



NEW ACQUISITIONS 신소장품전
일시: ~6.30(일) 10:00~18:00

2019 동시대이슈전 바디스캔들
일시: ~8.25(일) 10:00~18:00

essay

벚꽃의 꽃말

김예린 | 분당구 아탑동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래.”

언제부터인가 이 말이 유행처럼 돌았다. 그렇게 가볍게 떠도는 말은 나에게 은근한 압박이 되기도 했다. 고개를 들어 꽃을 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시험날짜가 얼마나 남았는지 헤아리기 바빴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얗게 웃는 벚꽃을 보면 정말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인 게 틀림없어, 하고 생각해버리고 마는 나였다.

작년, 한창 좋을 나이라던데,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다. 꽃은 만개했지만 시험과 과제는 쌓여 있고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벚꽃의 자리에는 낯선 잎사귀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봄이 짧네. 푸른 나무를 바라보다가 돌아선 나는 여전히 봄을 맞이하지 못한 채 다른 미로로 들어서야 했다.

그토록 스트레이트 졸업을 꿈꾸던 나는 올해 휴학생

이 됐다. 설 새 없이 원하지 않는 굴레 속에서 나를 어디론가 흘려보내고 살고 있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래서 휴식기를 가지며 올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나름대로의 규칙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봄의 흔적이 베란다에 다다랐다.

나는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탄천으로 벚꽃 구경을 갔다. 탄천길을 걸으며 온전하게 피어 있는 벚꽃을 눈에 가득 담았다. 바닥의 갈변한 꽃잎만 보던 나는 이제야 비로소 봄이 왔음을 알았다. 올해 봄은 너무 고마운 계절이었다. 나에게 중간고사가 아닌 자신의 품을 내주어서, 과하지도 야박하지도 않은 별을 찌는 봄이었다.

벚꽃의 꽃말은 어쩌면 잠깐 멈추기 아닐까. 너무 달리지만 말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봄에는, 그래도 된다.

모란시장의 추억, 그리고 사람의 향기

유용학 | 분당구 금곡동

성남 모란시장에 가면 누구나 옛 추억이 떠오른다. “튀밥 튼다~ 아~~ 귀덜 막어, 뽕이요!” 고함소리와 함께 배 이상 커진 강냉이가 ‘대포’에서 쏟아지며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던 시절.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참 대단했다. 생선가게 앞에는 물이 반쯤 찬 함지박에서 가물치가 퍼덕졌고, 순대국밥 집에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났다.

할머니를 따라나선 시장길에서 금세 만든 어묵꼬치를 먹는 아이, 애호박 서너 개 얹어 주며 가격을 푹 깎아 파는 인상 좋은 아저씨, 덩달아 값싸게 물건을 사는 할머니는 환하게 웃는다. 오랜만에 만나는 장돌뱅이 남자들은 벌써 대포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식사할 시간이 없어 누런 알루미늄 도시락에 싸온 콩보리밥에 깍두기와 함께 찬물에 말아 후루룩 먹으며 끼니를 대신하던 철물점 아저씨.

그런 진풍경 속에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 골목을 누비느라 발바닥이 부르텠던 기억들. 그래도 아픈 줄 몰

랐던 이유는 그 고통의 끝엔 반드시 꿀맛보다 달콤한 ‘국화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묵은 밀가루 반죽에 거칠게 으깬 통단팥이 밤톨만큼 들어간 국화빵. 요즘 겨울철에도 그때의 맛을 살린 국화빵이 우리 중년층의 추억을 자극한다. 시장이 만들어내는 이 같은 인정 넘치는 분위기는 화려한 현대식 마켓과는 또 달리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한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추억이 완전히 사라지랴? 지금도 나는 생활에 지치거나 맥이 풀리면 모란시장을 일부러 찾는다. 웬걸?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젊고 멀쑥한 도회지 회사원들, 예쁜 정장차림의 현대여성들이 적잖게 장 구경을 하는 게 보인다.

꼭 물건을 살 태세는 아니지만 이 직장인들, 항상 진지하다. 텀이나 에너리를 찾아 쇼핑 온 게 아니라 정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리워서다. 그렇게라도 한숨 돌리고 사무실로 돌아가야 기운이 날 것 같아서다.

가끔 모란시장을 만나 세상 사는 맛을 느껴 보자.

photo



엄경희 | 수정구 태평동

흔들린 우정

흔들리지 않고 피는 우정이 어디 있으랴 좌로 우로 왔다갔다 흔들리며 더욱 깊어가는 우리의 우정

전혜영 | 수정구 위례동

벚꽃 3부자의 행복 점프

벚꽃이 아름답게 만개한 판교 화랑공원길을 가족과 함께 걸으며, 행복을 향한 3부자의 힘찬 점프를 촬영!





군(軍)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조사

- 대상 : 1948.11.30~2018.9.13 동안 군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truth2018@korea.kr) 우편·방문접수(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신청서류 : 진정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02-6124-7531

마더피스타로 기초과정 모집

- 일정 : 5.21(화)~7.4(목) 매주 화·목 10:00~13:00
 - 대상 : 성남시 여성 20명 선착순
 - 내용 : 성평등한 마을을 설계하는 여성주의타로 활동가 성장 사업 (참가비 12만 원)
- 성남여성회 031-736-5659

성남시 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대상 : 만 55세 이하 성남시 여성 시민 (해외연주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내용 : 소프라노, 메조, 알토 부분 모집(비전공자 환영)
 - 활동기간 : 주2회(화·목 10:30~13:30)
 - 신청방법 : 오디오션 후 입단
- 성남시 여성합창단 010-5114-3397

토크콘서트 ‘엄마의 ME-TIME’

- 대상 : 관내 영유아 자녀 둔 부모
 - 일시 : 5.21(화) 10:30
 - 장소 : 성남시청 한누리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

다솜마을 입주신청 안내

- 대상 : 성남시 관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1순위 :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2순위 : 제조업체 기타 근로자
3순위 : 기타 근로자
 - 내용 : 보증금 150만 원 / 월임대료 9만 원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식 홈페이지 참고)
 - 위치 : 중원구 황송로 77번길 21
- 성남도시개발공사 031-732-7555

2019년 6·7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
수정구청	컴퓨터 기초(윈도우10 & 인터넷)	성남시민	6.3(월)~6.28(금)	월~금 10:00~12:00	5.15(수) 09:00~ 선착순 인터넷 접수 031-729-5073
	한글 2014		6.3(월)~6.28(금)	월~금 14:00~16:00	
중원구청	이미지 편집	성남시민	6.3(월)~6.28(금)	월~금 10:00~12:00	5.20(월) 09:00~ 선착순 인터넷 접수 031-729-6074
	스마트폰 기초		6.3(월)~6.28(금)	월~금 14:00~16:00	
	엑셀 2016		7.1(월)~7.26(금)	월~금 10:00~12:00	
	컴퓨터 기초(WIN10) 및 인터넷 기초		7.1(월)~7.26(금)	월~금 14:00~16:00	
수정도서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영상 만들기	성남시민	6.4(화)~6.25(화)	화·수·목·금 10:00~12:00	5.21(화) 10:00~ 5.23(목) 18:00 선착순 인터넷 접수 031-743-9600
	엑셀데이터를 활용한 실무프리젠테이션		6.1(토)~6.22(토)	토 10:00~12:00	
중원도서관	엄마 아빠가 먼저 배우는 코딩	성남시민	6.10(월)~6.27(목)	월~목 10:00~12:00	5.21(화) 10:00~5.23(목) 선착순 인터넷 접수 031-752-3913
	ITQ엑셀		6.1(토)~6.29(토)	토 10:00~13:00	
(사)성남시 장애인정보화협회	인터넷 활용, 컴퓨터기초, ITQ, 포토샵 등	장애인 및 성남시민	3개월	전화문의	수시모집 010-5184-6884 031-732-6884

※ 중앙도서관 및 분당구청 교육일정은 중앙도서관 031-729-4633, 분당구청 031-729-707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뮤지컬 - 미녀와 야수

- 대상 : 관내 영유아 자녀 둔 부모
 - 일시 : 5.24(금) 19:00
 - 장소 : 성남시청 온누리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

청소년 생활체육 3대3 농구대회

- 대상 :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관내 중·고등학생
 - 일시 : 5.11(토) 09:00
 - 장소 : 성남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및 야외농구장
 - 접수기간 : 4.22(월) 10:00~5.3(금) 16:00(선착순)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성남시체육회 031-784-0731

판교테크노밸리 우편취급국 개국

- 내용 : 4.15(월)부터 업무시작
 - 위치 : 분당구 판교로227번길 6, 판교테크노밸리 브릿지타워 105호(삼평동)
- 우편취급국중앙회 044-867-9192~4

자연환경해설사 기본 양성과정 모집

- 교육기간 : 5.25(토)~6.30(일) 매주 토·일 09:00~18:00
 - 접수기간 : 3.8(금)~마감시
 - 교육비 : 기본 80만 원(경기도민·경기도 재직자 20만 원 지원)
- 분당환경시민의모임 031-702-5767

자영업자 미소금융 대출

- 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5등급 이하 상담가능) 또는 근로장려금 수혜자, 차상위계층 확인자, 기초생활수급권자
 - 내용 : 개인사업자 운영 및 시설자금 (2천만 원 한도 내, 연 4.5%)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LG미소금융재단 031-697-8136

장남감도서관 회원 모집

- 대상 :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성남시민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 신청기간 | 추첨일 | 등록기간 | 지점명 | 추첨인원 |
|----------------|---------|-----------------|-----|------|
| 5.1(수)~5.14(화) | 5.16(목) | 5.21(화)~5.25(토) | 금광점 | 150명 |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

에어프라이어 마스터 셰프 북토크

- 대상 : 성남시민
 - 내용 :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맛있고 건강한 요리 이야기
 - 일시 : 5.13(월) 10:30
 - 접수기간 : 4.29(월)~5.5(일)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및 당일 선착순
- 성남시 해오름도서관 031-729-8775

대한노인회 무료 취업지원센터 운영

-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직종 : 경비, 미화, 학교숙직, 주차관리, 가사도우미, 택배, 잔디관리
- 대한노인회 수정구취업지원센터 031-746-7760
대한노인회 중원구취업지원센터 031-623-4009
대한노인회 분당구취업지원센터 031-704-2125

분당벨칸토여성합창단·분당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 대상 : 음악을 사랑하는 누구나
 - 연습일
분당벨칸토 여성합창단 : 매주 목요일 11:00~14:00
분당남성합창단 : 매주 화요일 19:30~22:00
 - 장소 : 분당구 백현로 144번길 17-6(정자동)
- 지휘자 010-9790-9272

인지지원서비스 황송청춘학교 학생 모집

- 대상 : 만 60세 이상 인지지원등급자
 - 일시 : 4월~12월 매주 화·수·목 13:00~16:00
 - 내용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의 두뇌·신체·영양·사회 프로그램(민요, 공예, 건강체조 등)
- 황송노인종합복지관 031-602-7553

분당세대공감축제 다함께놀자

- 일시 : 5.11(토) 10:00~16:00
 - 장소 : 탄천 잔디밭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앞 불정교 아래)
 - 내용 : 먹거리 및 체험부스, 에어바운스, 플리마켓, 공연, 건강박람회 등
- 성남시분당노인종합복지관 031-785-9200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성남

꽃나들이도 비전성남 과 함께!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비전성남" 검색 후 설치



교육력 시정소식지에 편리함을 더하다

※ 신규 우편발송 신청 서비스는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면 소식지 필요 시 가까운 사구 청사,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수련관 등 다중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식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금역 현대벤처빌 전통시장 주상복합상가에 오밀조밀 들어선 ‘알참’



미금역 3번 출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보바스기념병원행 버스가 정차한다는 특수가 빛어낸 듯 ‘미금역 현대벤처빌’ 전통시장이 의로기기 특화상가로 빛을 발한다. 그 빛은 시장을 안내하는 특수효과로 성장한다.

지하철을 타고 미금역 3번 출구로 나온 여섯 살 시영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현대벤처빌 전통시장(주상복합상가)에 들어섰다. 당뇨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의로기도 사고 시영이가 감기도 치료할 겸 자주 찾는 곳이다.

“구미동, 미금역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다고요?”

취재차 미금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간다는 말에 신도시 변화가의 전통시장을 의아하게 묻던 것처럼, 기자 또한 전통시장으로 의로기를 구입하러, 감기를 치료하러 왔다는 시영이가 의아하긴 마찬가지다.

1층 문을 열고 들어서 가지런히 정리된 간판을 보니 어디에 무슨 점포가 있는지 한눈에 들어온다. 의로기 전문점이 유독 많다. 채양기 상인회장은 “미금역 현대벤처빌 전통시장은 의로기 특화상가로 유명하다. 오산, 용인, 안양 등지에서 찾아올 정도다”라며 “의로기를 구입하러 왔다가 빙 둘러 숙녀복, 액세서리 등 품질 좋은 패션상품도 만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한다.

2층 할아버지가 사용할 의로기를 구입한 후 시영이가 향한 곳은 2층 소아과다. 근처에선 꽤 유명하다는 소아과 의원이 2층에 자리 잡고 있어 아이와 함께 오는 엄마가 많다. 치과, 약국, 공방, 침구, 네일아트숍, 카페, 특히 아동복 매장이 많다.

시영의 진료접수를 마친 엄마는 대기시간을 이용해 쇼핑을 즐긴다. 지난달 받은 아동수당(체크카드)으로 시영이 봄옷을 한 벌 사줄까, 침구를 바꿔줄까, 머리핀도 예쁘고...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주상복합상가 지하 1층(식당가), 지상 1·2층에 형성된 현대벤처빌 시장은 120여 개 점포가 오밀조밀 알차게

들어서 있다. “없는 게 없을 만큼 다양한 품목, 확실한 냉난방, 저렴한 가격, 친절할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라고 말하는 상인(올리브커튼)의 말이 실감될 정도다.

2015년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미금역 현대벤처빌 시장 사람들은 상인대학, 점포혁신대학, 맞춤형교육 수료는 물론 매년 공동마켓 행사를 열어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한다. 상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2019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 ‘바우처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로 이어졌다.

채양기 상인회장은 “주상복합상가 내 시장이다 보니 전통시장이란 걸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미금역 상권의 유일한 전통시장으로 편하게 쇼핑을 즐긴 후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한 미소로 맞이하겠다”고 홍보를 부탁했다. ‘오전 10시~오후 8시 30분 영업, 일요일은 휴무’라는 참고와 함께.

진료를 마친 시영이는 엄마가 사준 예쁜 옷이랑 머리핀 때문에 아픈 주사는 생각나지도 않는다. “우리, 지하 식당에서 짜장면 먹고 갈까?”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시영이에게 미금역 현대벤처빌 전통시장은 언제나 즐거움이다.

취재 윤현자 기자 yoonh1107@naver.com

취재 김미진 기자 qeen03@hanmail.net

1 미금역 현대벤처빌 전통시장 전경

2 2층 상가 내부

3 채양기 상인회장과 함께

4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5 상인들이 손수 꾸며놓은 2층 휴식공간

6 1층 의로기상가에서 물건 구매하는 시영이네

7 1층 상가 내부

